

2011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 집 필 진 ▶

- 성재민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를 펴내면서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큰 변화를 겪어 왔고, 그중 임시·일용직의 폭발적 증가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빈부격차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확대하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비정규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한 기초통계자료의 축적과 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비정규직의 규모와 근로조건의 현황과 추이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이 자료집에서는 시계열 변화에 더하여 고용형태별로 심층적인 노동통계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비정규직과 관련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번에 발간하는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는 2011년까지의 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 자료집의 발간을 위해 관련 노동통계의 정리·가공 및 분석하는 책임을 맡은 성재민·정성미 책임연구원과, 통계자료 정리를 도와준 이정아님, 출판을 담당한 정철 전문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본 통계자료집이 정책 담당자, 학자, 노사의 현장 전문가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향후 자료집의 구성과 발간에 대해 많은 조언과 비판을 기대한다. 앞으로도 한국노동연구원은 비정규직 노동통계의 체계적 제공과 시의성 있는 분석을 통하여 고용노동정책의 수립과 학술연구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1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김 승택

목 차

I. 개 요	1
II. 비정규직의 규모 추이	4
〈표 II- 1〉 고용형태별 규모 추이	4
〈표 II- 2〉 한시적 근로자의 고용규모 및 비중 추이	5
〈표 II- 3〉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계약 기간별 규모 추이	6
〈표 II- 4〉 비전형 근로자의 세부 고용형태별 규모 추이	7
III. 비정규직의 특성별 추이	8
1. 비정규직의 인적 특성	8
2. 비정규직의 사업체 특성	20
〈표 III- 1〉 고용형태별 성별 구성(2011년 8월)	8
〈표 III- 2〉 성별·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비중 추이	10
〈표 III- 3〉 고용형태별 학력 구성(2011년 8월)	11
〈표 III- 4〉 학력별·고용형태별 비중 추이	14
〈표 III- 5〉 고용형태별 연령 구성(2011년 8월)	15
〈표 III- 6〉 연령별·고용형태별 비중 추이	19
〈표 III- 7〉 고용형태별 산업 분포(2011년 8월)	21
〈표 III- 8〉 산업별·고용형태별 비중 변화(2004년→2011년)	23
〈표 III- 9〉 비전형 근로의 산업별·고용형태별 비중 변화 (2004년→2011년)	25

〈표 III-10〉 고용형태별 직업 분포(2011년 8월)	27
〈표 III-11〉 직종별·고용형태별 비중 변화(2004년→2011년)	28
〈표 III-12〉 고용형태별 사업체 규모 분포(2011년 8월)	29
〈표 III-13〉 사업체규모별·고용형태별 비중 추이	31
〈표 III-14〉 고용형태별 종사상지위별 규모 및 비중(2011년 8월)	32
〈표 III-15〉 고용형태별·종사상지위별 비중 추이	34

[그림 III-1] 교육수준별·성별 비정규직 비중 추이	12
[그림 III-2] 5세 단위 구간별·성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16

IV.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시간, 근속기간

1. 임 금	35
2. 근로시간	38
3. 근속기간	39

〈표 IV- 1〉 고용형태별 월평균 상대임금 추이(8월 기준, 정규직=100)	36
〈표 IV- 2〉 고용형태별 상대 시간당 임금수준 추이 (8월 기준, 정규직=100)	37
〈표 IV- 3〉 고용형태별 평균임금 격차 추이	38
〈표 IV- 4〉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추이	39
〈표 IV- 5〉 고용형태별 평균 근속기간 추이	40
〈표 IV- 6〉 고용형태별 근속기간 분포(2011년 8월 기준)	41

V. 비정규직의 복지

1. 사회보험	42
2.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의 복지제도와 상여금	45

3. 근로계약서와 직업훈련	49
〈표 V- 1〉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률 추이	42
〈표 V- 2〉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추이	43
〈표 V- 3〉 고용형태별 건강보험 가입률 추이	44
〈표 V- 4〉 근로형태별 퇴직금 수혜율	45
〈표 V- 5〉 고용형태별 상여금 수혜율	47
〈표 V- 6〉 고용형태별 유급휴가 수혜율	48
〈표 V- 7〉 고용형태별 시간외수당 수혜율	49
〈표 V- 8〉 고용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 비중 추이	50
〈표 V- 9〉 고용형태별 직업훈련 경험 추이	51
VI. 비정규직의 취업사유	52
〈표 VI- 1〉 고용형태별 취업사유 구성(2011년 8월)	53
〈표 VI- 2〉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 추이	54
〈표 VI- 3〉 국제 관행과 유사한 측정수단을 이용한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	55
VII.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	56
〈표 VII- 1〉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56
〈표 VII- 2〉 고용형태별 유노조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비중 추이	57
〈표 VII- 3〉 고용형태별 유노조사업체 중 노조 가입자격이 있는 비중 ...	58
〈표 VII- 4〉 고용형태별 노조 가입자격 있는 사람 중 조합원 비중 추이	59

부 표 61

〈부표 1〉 임금근로자 추이(8월 기준) 62

〈부표 2〉 정규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64

〈부표 3〉 비정규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66

〈부표 4〉 한시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68

〈부표 5〉 기간제 근로자 추이(8월 기준) 70

〈부표 6〉 계약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72

〈부표 7〉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 추이
(8월 기준) 74

〈부표 8〉 비전형 근로자 추이(8월 기준) 76

〈부표 9〉 파견근로자 추이(8월 기준) 78

〈부표 10〉 용역근로자 추이(8월 기준) 80

〈부표 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추이(8월 기준) 82

〈부표 12〉 가정 내 근로자 추이(8월 기준) 84

〈부표 13〉 일일근로자 추이(8월 기준) 86

〈부표 14〉 시간제 근로자 추이(8월 기준) 88

〈부표 15〉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8월 기준) 90

I. 개 요

- 우리나라에서 공식 집계되는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구분됨.
- 한시적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로 정의됨.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라 하며, 이를 제외한 한시적 근로자를 ‘비기간제 근로자’라 함.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 설문에서는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됨.
 - 이하에서는 ‘비기간제 근로자’ 중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반복갱신’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기대불가’로 구분함.
 - 경활 설문에서는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고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계속 다닐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반복갱신’에 해당됨.
 - 또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다닐 수 없다”고 응답하고, 그 이유로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묵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그만두라면 언제든지 그만두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

트)가 끝나기 때문에, 현재의 일자리에선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기 때문에, 특정 계절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들이 ‘기대불가’에 해당

- 시간제 근로자란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함.
- 비전형 근로자란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로 정의됨.
 - 파견근로자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형태를 의미함.
 - 용역근로자란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청소용역, 경비용역 등)를 의미함.
 - 경찰 설문에서 “임금(급여)을 지난주 일한 직장(일)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파견업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파견근로자로, 용역업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용역근로자로 분류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개인적으로 모집, 판매, 배달, 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형태를 의미함.
 - 경찰 설문에서 “지난주에 다니던 직장(일)은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됩니까”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며, 설문 상에 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쿠키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는 예시가 있음.
 - 가정 내 근로자란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가정 내에서 근무

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의미함. 경찰 설문에서는 “지난주에 주로 어디에서 일하셨습니다까”라는 질문에서 “가정에서”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정 내 근로자로 분류되며, 파출부, 입주 부모, 입주 가정교사 등은 “가정에서”라고 응답하면 안된다는 설명이 있음.

- 일일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를 의미함. 경찰 설문에서는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난주 일자리는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 일일근로자에 해당됨. 건설일용근로자, 파출부, 간병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는 예시문이 있음.
- 이상과 같은 정의에 따른 비정규직 공식 통계조사는 2002년부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로 매년 8월에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3월에도 같은 조사를 수행함.
- 3월과 8월은 계절적 특징이 다르므로 본 자료집에서는 8월 조사를 기준으로, 2002년부터 현시점에서 가용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11년까지 비정규직 추이를 정리할 것임.

II. 비정규직의 규모 추이

-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8월 37.0%를 정점으로 2008년 8월 33.8%까지 하락하였으나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2009년 8월 34.9%로 상승하였으며, 2011년 8월 현재 34.2% 기록(표 II-1 참조).
- 한시적 근로는 2004년 8월 24.7%에서 2011년 8월 19.7%로 감소했으나, 비전형 근로의 경우 2004년 8월 13.4%에 비해 2011년 8월이 더 높은 13.9%를 보였으며, 시간제 근로는 동 기간 7.4%에서 9.7%로 증가하였는데 최근 4년간 꾸준히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남.

<표 II-1> 고용형태별 규모 추이

(단위: 천 명, %)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한시적 근로	비전형 근로	시간제
2002. 8	14,030	10,190 (72.6)	3,839 (27.4)	2,063 (14.7)	1,742 (12.4)	807 (5.8)
2003. 8	14,149	9,542 (67.4)	4,606 (32.6)	3,013 (21.3)	1,678 (11.9)	929 (6.6)
2004. 8	14,584	9,190 (63.0)	5,394 (37.0)	3,597 (24.7)	1,948 (13.4)	1,072 (7.4)
2005. 8	14,968	9,486 (63.4)	5,482 (36.6)	3,614 (24.2)	1,907 (12.7)	1,044 (7.0)
2006. 8	15,351	9,894 (64.5)	5,457 (35.6)	3,626 (23.6)	1,933 (12.6)	1,135 (7.4)
2007. 8	15,882	10,180 (64.1)	5,703 (35.9)	3,546 (22.3)	2,208 (13.9)	1,201 (7.6)
2008. 8	16,103	10,658 (66.2)	5,445 (33.8)	3,288 (20.4)	2,137 (13.3)	1,229 (7.6)
2009. 8	16,479	10,725 (65.1)	5,754 (34.9)	3,507 (21.3)	2,283 (13.9)	1,426 (8.7)
2010. 8	17,048	11,362 (66.7)	5,685 (33.4)	3,281 (19.2)	2,289 (13.4)	1,620 (9.5)
2011. 8	17,510	11,515 (65.8)	5,994 (34.2)	3,442 (19.7)	2,427 (13.9)	1,702 (9.7)

주: 1) 괄호는 임금근로자 중 비중임.

2) 한시적 근로이면서 비전형 근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시적 근로자에도 들어가고 비전형 근로자에도 들어가므로, 비정규직 전체 수는 한시적 근로+비전형 근로+시간제 근로의 합이 아님. 비정규직 전체 수는 이와 같은 중복을 제거한 것임.

- 한시적 근로를 세분해 보면 기간제 비중은 2005년 8월 전체 임금근로자 중 18.2%를 차지하여 정점을 기록한 후 2010년 8월 14.6%까지 비중이 축소되었으나 2011년 8월 15.2%로 소폭 증가함(표 II-2 참조).
- 비기간제 근로 중 반복갱신은 2004년 8월 4.0%가 정점이었고, 2011년 8월 1.9%로 나타남. 기대불가는 2005년 8월 3.9%가 정점이었고, 2011년 8월 2.5%로 하락하였음.

<표 II-2> 한시적 근로자의 고용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2002. 8	1,536 (10.9)	281 (2.0)	247 (1.8)
2003. 8	2,403 (17.0)	248 (1.8)	362 (2.6)
2004. 8	2,491 (17.1)	580 (4.0)	526 (3.6)
2005. 8	2,728 (18.2)	302 (2.0)	585 (3.9)
2006. 8	2,722 (17.7)	465 (3.0)	439 (2.9)
2007. 8	2,531 (15.9)	555 (3.5)	460 (2.9)
2008. 8	2,365 (14.7)	374 (2.3)	549 (3.4)
2009. 8	2,815 (17.1)	170 (1.0)	521 (3.2)
2010. 8	2,494 (14.6)	305 (1.8)	481 (2.8)
2011. 8	2,668 (15.2)	339 (1.9)	436 (2.5)

주: 괄호는 임금근로자 중 비중임.

- <표 II-3>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계약 기간별로 보면, 1개월 미만 일하기로 계약한 초단기 근로자들의 비중이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3년을 초과해 일하기로 계약한 사람들의 비중은 2007년 8월을 정점으로 그 이후 빠르게 감소했고, 2008년 8월 이후 집계 가능한 2년 초과 3년 이하의 계약을 한 사람들의 비중도 감소했음(표 II-3 참조).
- 이는 모두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간

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년 7월부터 시행)의 영향으로 보임.

- 기간제 중 1년 계약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과 수는 모두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 8월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 49.3%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 8월에는 47.4%로 비중이 소폭 감소했으나 근로자수는 전년 동월대비 33천 명 증가(표 II-3 참조).
- 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을 한 사람들의 비중도 증가하여 2009년 8월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 42.1%까지 규모가 커졌으나, 2011년 8월에는 34.7%로 감소하였음.

<표 II-3>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계약 기간별 규모 추이

(단위: 천 명, %)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2002. 8	728 (47.4)	373 (24.3)	260 (17.0)	90 (5.9)		85 (5.5)
2003. 8	947 (39.4)	698 (29.0)	463 (19.3)	189 (7.9)		105 (4.4)
2004. 8	813 (32.6)	684 (27.4)	641 (25.7)	241 (9.7)		113 (4.5)
2005. 8	824 (30.2)	724 (26.6)	791 (29.0)	262 (9.6)		127 (4.6)
2006. 8	803 (29.5)	747 (27.4)	772 (28.4)	259 (9.5)		140 (5.2)
2007. 8	512 (20.2)	750 (29.6)	851 (33.6)	230 (9.1)		189 (7.5)
2008. 8	400 (16.9)	765 (32.3)	824 (34.8)	191 (8.1)	127 (5.4)	59 (2.5)
2009. 8	255 (9.0)	1,186 (42.1)	1,086 (38.6)	178 (6.3)	78 (2.8)	33 (1.2)
2010. 8	160 (6.4)	856 (34.3)	1,231 (49.3)	152 (6.1)	63 (2.5)	33 (1.3)
2011. 8	168 (6.3)	925 (34.7)	1,264 (47.4)	172 (6.5)	78 (2.9)	60 (2.2)

주: 괄호는 기간제 근로자 중 각 고용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임.

- 파견근로는 2010년 8월에 임금근로자 중 비중이 1.2%로 가장 많았으며, 2011년 8월은 이보다 약간 감소한 1.1%를 보였고, 용역근로는 2008년 8월 4.0%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다소 주춤하고 있음(표 II

-4 참조).

- 특수형태근로자의 임금근로자 중 비중은 2002년 8월 5.5%를 정점으로 2011년 8월 3.5%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가정 내 근로도 계속 감소하여 2011년 8월 7만 명대로 떨어짐. 일일근로도 2002년 8월 2.9%로 출발하여 증가해 왔으나 최근 4년간 증가세가 주춤하여 2010년 8월 5.1%를 기록함.

<표 II-4> 비전형 근로자의 세부 고용형태별 규모 추이

(단위: 천 명, %)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2002. 8	94 (0.7)	332 (2.4)	772 (5.5)	235 (1.7)	412 (2.9)
2003. 8	98 (0.7)	346 (2.4)	600 (4.2)	166 (1.2)	589 (4.2)
2004. 8	117 (0.8)	413 (2.8)	711 (4.9)	171 (1.2)	666 (4.6)
2005. 8	118 (0.8)	431 (2.9)	633 (4.2)	141 (0.9)	718 (4.8)
2006. 8	131 (0.9)	498 (3.2)	617 (4.0)	175 (1.1)	667 (4.3)
2007. 8	174 (1.1)	593 (3.7)	635 (4.0)	125 (0.8)	845 (5.3)
2008. 8	139 (0.9)	641 (4.0)	595 (3.7)	65 (0.4)	818 (5.1)
2009. 8	165 (1.0)	622 (3.8)	637 (3.9)	99 (0.6)	883 (5.4)
2010. 8	211 (1.2)	608 (3.6)	590 (3.5)	70 (0.4)	870 (5.1)
2011. 8	197 (1.1)	672 (3.8)	614 (3.5)	75 (0.4)	962 (5.5)

주: 괄호는 임금근로자 중 비중임.

Ⅲ. 비정규직의 특성별 추이

1. 비정규직의 인적 특성

- 성별 구성을 보면 정규직에서는 남성(62.9%)이 여성(37.1%)보다 많지만, 비정규직에서는 여성(53.4%)이 남성(46.6%)보다 많음(표 Ⅲ-1 참조).
- 한시적 근로와 시간제 근로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고, 비전형 근로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높음.
- 세부 고용형태별로 보면 반복갱신, 용역, 일일근로를 제외하면 전

<표 Ⅲ-1> 고용형태별 성별 구성(2011년 8월)

(단위: 천 명, %)

	규모			비중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임금근로자 전체	17,510	10,034	7,476	100.0	57.3	42.7
정규직	11,515	7,242	4,273	100.0	62.9	37.1
비정규직	5,994	2,791	3,203	100.0	46.6	53.4
한시적 근로	3,442	1,644	1,798	100.0	47.8	52.2
기간제	2,668	1,265	1,403	100.0	47.4	52.6
반복갱신	339	188	151	100.0	55.5	44.5
기대불가	436	191	244	100.0	43.9	56.1
비전형 근로	2,427	1,257	1,170	100.0	51.8	48.2
파견	197	92	105	100.0	46.7	53.3
용역	672	376	297	100.0	55.9	44.1
특수형태근로	614	198	416	100.0	32.2	67.8
가정 내 근로	75	9	66	100.0	11.7	88.3
일일근로	962	626	336	100.0	65.1	34.9
시간제 근로	1,702	470	1,232	100.0	27.6	72.4

부 여성이 많음. 반복갱신은 이하에서 나오겠지만 그 특성이 정규직과 유사하여 남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일일근로에는 건설업 숙련공이 많아 남성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비정규직이 남성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32.2%를 정점으로 그 이후 비중이 작아져 2011년 27.8%를 기록하였고,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43.7%를 기록한 이후 2008년까지 하락(40.8%)하였으나,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44.1%로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였다가 2011년에는 42.8%로 감소하였음(표 III-2 참조).
 - 정점이었던 2004년과 가장 최근 시점인 2011년을 단순 비교하면 남성 비정규직 비중은 4.4%포인트 하락한 반면, 여성은 0.9%포인트 하락하여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 하락 속도가 느림.
- 한시적 근로는 남녀 모두 전체 비정규직 비중 추이와 비교적 유사하게 움직이지만, 비전형 근로는 남성의 경우 줄어드는 비중 추이가 아니며, 여성도 비전형 근로의 경우 2010년에 일시적 하락을 보일 뿐 줄어드는 비중 추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표 III-2 참조).
 - 파견/용역근로자는 남녀 모두 2007년까지 각각 4.6%, 5.2%까지 비중이 증가하였고, 그 이후로는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1년 각각 4.7%와 5.4%인 것으로 나타남
 -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남성 2002년 4.0%에서 2011년 2.0%로, 여성은 같은 연도에 7.7%에서 5.6%로 비중이 감소함.
 - 일일근로는 남성의 경우 2002년 3.2%에서 2007년 6.0%까지 비중이 증가한 이후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3.6~4.5% 정도의 비중을 오가고 있음.
- 시간제 근로는 남성의 경우 완만히 증가(2002년 2.8% → 2011년 4.7%)하지만, 여성에서는 증가가 확연하게 나타남(2002년 10.0% → 2011년 16.5%).

<표 III-2> 성별·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비중 추이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비정규직	남성	23.5	27.6	32.2	31.5	30.4	31.5	28.8	28.2	27.1	27.8
	여성	32.9	39.6	43.7	43.7	42.7	42.1	40.8	44.1	41.8	42.8
한시적 근로	남성	13.9	19.1	22.6	21.5	21.5	20.8	18.2	17.7	16.1	16.4
	여성	15.8	24.4	27.6	27.8	26.6	24.4	23.6	26.2	23.5	24.1
기간제	남성	10.9	15.7	15.9	17.1	16.5	15.2	13.6	14.3	12.4	12.6
	여성	11.0	18.8	18.8	19.8	19.5	16.9	16.2	20.8	17.7	18.8
비전형 근로	남성	10.3	10.0	11.4	11.1	10.3	12.4	11.9	12.1	12.4	12.5
	여성	15.5	14.5	16.0	15.0	15.8	16.1	15.1	16.2	14.8	15.7
파견/용역	남성	3.1	3.0	3.4	3.3	3.8	4.6	4.6	4.4	4.5	4.7
	여성	3.0	3.4	3.9	4.1	4.6	5.2	5.2	5.4	5.2	5.4
특수형태근로	남성	4.0	2.8	3.6	2.8	2.1	2.3	1.9	2.1	2.0	2.0
	여성	7.7	6.3	6.6	6.3	6.7	6.3	6.1	6.2	5.5	5.6
일일근로	남성	3.2	4.6	4.7	5.4	4.9	6.0	6.0	6.0	6.2	6.2
	여성	2.6	3.6	4.4	4.0	3.6	4.4	3.8	4.4	3.6	4.5
시간제 근로	남성	2.8	2.9	3.3	3.6	3.9	3.9	4.0	3.9	4.4	4.7
	여성	10.0	11.7	13.0	11.7	12.3	12.7	12.7	15.2	16.4	16.5

주: 임금근로자 중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비정규직의 학력분포를 보면, 고졸 43.1%, 고졸 미만 25.9%, 대졸 이상 19.8%, 전문대졸 11.2%로 구성되어 있음(표 III-3 참조).
- <표 III-3>의 학력 집단 분포는 절대적인 임금근로자 인구규모로 볼 때 고졸이 가장 많고, 전문대졸이 가장 작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각 학력 집단 안에서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을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그림 III-1 참조).
 - 고졸 미만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에서 남녀 차이는 거의 없으며, 전체 고졸 미만 임금근로자의 60% 가까이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표 III-3> 고용형태별 학력 구성(2011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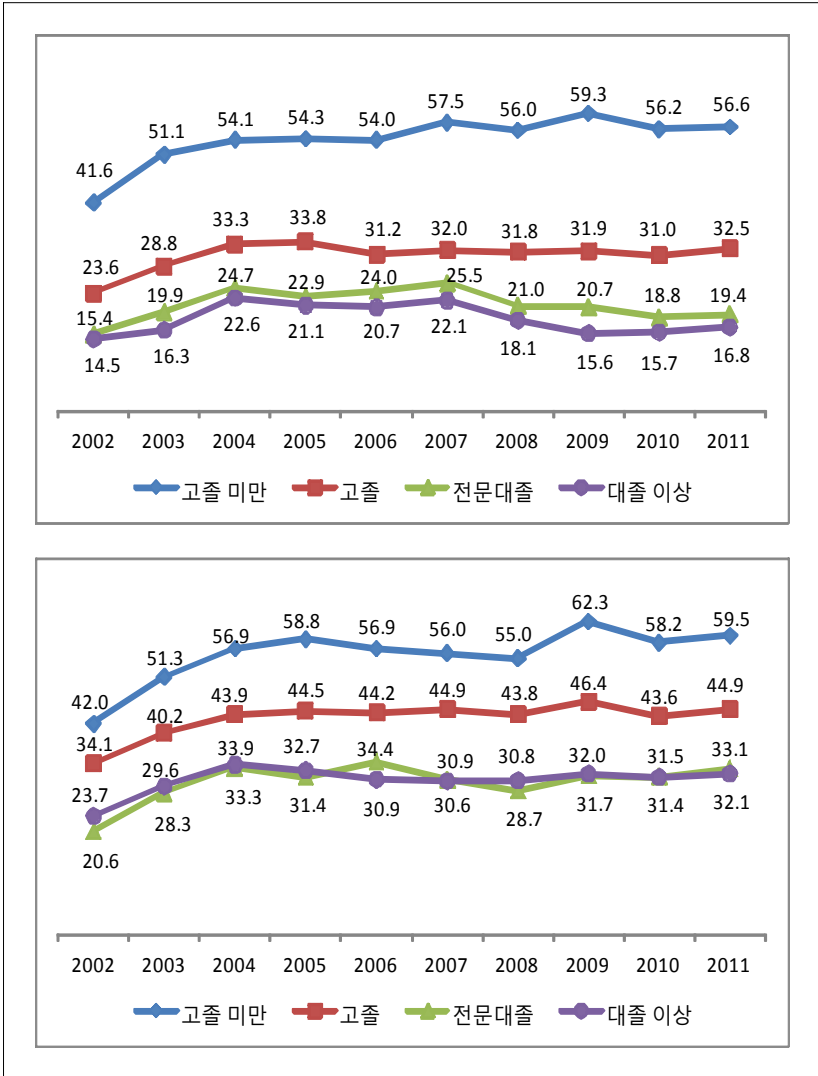
(단위: %)

	규모					비중				
	전체	고졸 미만	고졸	전문 대졸	대졸 이상	전체	고졸 미만	고졸	전문 대졸	대졸 이상
임금근로자 전체	17,510	2,665	6,824	2,614	5,408	100.0	15.2	39.0	14.9	30.9
정규직	11,515	1,112	4,239	1,943	4,221	100.0	9.7	36.8	16.9	36.7
비정규직	5,994	1,553	2,585	671	1,186	100.0	25.9	43.1	11.2	19.8
한시적 근로	3,442	794	1,304	480	864	100.0	23.1	37.9	14.0	25.1
기간제	2,668	631	975	395	667	100.0	23.6	36.5	14.8	25.0
반복갱신	339	30	115	56	137	100.0	9.0	34.1	16.5	40.5
기대불가	436	133	214	29	60	100.0	30.4	49.0	6.7	13.8
비전형 근로	2,427	847	1,126	180	274	100.0	34.9	46.4	7.4	11.3
파견	197	39	102	17	39	100.0	19.6	52.0	8.7	19.6
용역	672	273	302	48	50	100.0	40.6	44.9	7.1	7.4
특수형태근로	614	70	313	80	152	100.0	11.3	50.9	13.0	24.7
가정 내 근로	75	20	40	6	8	100.0	27.3	53.8	8.3	10.5
일일근로	962	474	421	36	32	100.0	49.3	43.7	3.7	3.3
시간제 근로	1,702	538	782	113	269	100.0	31.6	45.9	6.6	15.8

- 여성 고졸 임금근로자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 여성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은 유사한 비정규직 비중을 보이며, 남성과 비교하면 남성 고졸에서 나타나는 비정규직 비중에 근접한 수치를 보임.
 - 남성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은 여성 및 다른 학력 집단과 달리 2007년 이후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함.
- <표 III-4>에서 세부 고용형태별로 보아도 특수형태근로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대졸 이상 기간제는 2005년 이후 꾸준히 비중이 감소했으나, 나머

[그림 III-1] 교육수준별 · 성별 비정규직 비중 추이

(단위 : %)



주 : 위는 남성, 아래는 여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지 학력은 2005년과 2008년 사이에 감소 후 국제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학력이 낮을수록 기간제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한 다음 다시 감소함.

- 2011년에는 2010년보다 모든 학력에서 기간제 비중이 소폭 증가함.
-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임금근로자 중 일일, 용역, 파견근로자의 비중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내내 극히 미미하지만, 특수형태근로에서는 2011년 기준 고졸 미만보다 높은 2.8% 비중을 기록함. 이는 특수형태근로에는 학습지 교사 같은 고학력자를 필요로 하는 직종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임.
- 시간제 근로는 대체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중이 많이 증가했음. 이를테면, 고졸 미만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2002년 8.8%에서 2011년 20.2%로 증가한 반면, 대졸 이상에서는 2002년 3.7%에서 2011년 5.0%로 증가함. 다른 세부 고용형태와는 달리 전문대졸자 중 시간제 근로 비중은 대졸보다 낮은 특징도 있음.

<표 III-4> 학력별 · 고용형태별 비중 추이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비정규직	고졸 미만	41.8	51.2	55.6	56.8	55.5	56.7	55.4	61.0	57.3	58.3
	고 졸	27.7	33.5	37.6	38.2	36.5	37.5	36.8	38.1	36.4	37.9
	전문대졸	17.8	23.9	28.8	27.1	29.1	28.1	24.7	25.8	24.6	25.7
	대졸 이상	17.2	20.3	26.1	24.7	24.1	24.8	22.3	21.0	21.0	21.9
한시적 근로	고졸 미만	21.8	31.1	33.5	33.1	32.6	29.4	29.0	35.4	29.6	29.8
	고 졸	14.2	21.6	24.4	24.7	23.3	21.7	20.2	21.4	19.3	19.1
	전문대졸	10.4	17.2	21.8	20.6	22.5	22.0	18.9	18.7	16.4	18.4
	대졸 이상	11.1	15.0	20.0	18.8	18.9	19.2	16.8	14.8	15.1	16.0
기간제	고졸 미만	16.1	24.3	23.4	22.9	24.4	21.2	19.8	27.6	22.8	23.7
	고 졸	10.1	17.3	16.8	18.3	17.6	15.0	13.8	16.7	14.2	14.3
	전문대졸	8.0	13.4	14.7	16.5	16.4	16.0	14.5	15.8	12.8	15.1
	대졸 이상	9.1	12.4	14.0	15.7	14.2	14.2	13.2	12.7	11.8	12.3
비전형 근로	고졸 미만	21.2	23.3	25.7	25.8	27.0	30.3	28.7	29.9	30.0	31.8
	고 졸	12.9	11.9	13.9	13.4	13.5	15.6	15.6	15.7	15.2	16.5
	전문대졸	7.1	7.1	7.8	6.8	6.8	6.5	6.3	7.8	8.0	6.9
	대졸 이상	5.3	4.9	6.1	5.4	4.5	4.9	4.9	5.6	5.0	5.1
파견	고졸미만	0.4	0.6	0.9	0.7	1.1	1.1	0.8	1.0	1.8	1.5
	고졸	0.9	0.9	0.9	0.9	1.0	1.4	1.1	1.0	1.5	1.5
	전문대졸	0.8	0.8	1.0	1.0	0.6	1.3	1.0	1.1	1.2	0.7
	대졸이상	0.5	0.3	0.5	0.6	0.5	0.5	0.6	0.9	0.7	0.7
용역	고졸 미만	5.8	6.6	7.9	8.3	9.6	10.6	11.1	10.5	9.6	10.2
	고 졸	2.1	2.1	2.5	2.6	3.1	3.7	4.3	3.9	3.8	4.4
	전문대졸	0.6	0.8	1.2	1.2	1.0	1.5	1.4	1.8	2.0	1.8
	대졸 이상	0.3	0.6	0.5	0.5	0.4	0.7	0.9	0.9	0.9	0.9
특수형태근로	고졸 미만	5.0	3.7	3.9	3.5	4.0	3.4	2.2	3.2	2.7	2.6
	고 졸	6.7	4.8	5.7	4.9	4.6	5.2	5.0	4.8	4.2	4.6
	전문대졸	4.6	4.6	4.2	3.5	3.8	2.7	3.2	3.1	3.1	3.1
	대졸 이상	4.0	3.6	4.4	4.0	3.2	3.2	2.9	3.4	3.0	2.8
일일근로	고졸 미만	8.0	11.4	12.5	13.1	12.2	16.0	15.6	16.1	16.1	17.8
	고 졸	2.4	3.9	4.5	5.0	4.6	5.6	5.8	6.0	5.6	6.2
	전문대졸	0.8	0.9	1.0	1.2	1.2	1.1	0.8	1.7	1.5	1.4
	대졸 이상	0.1	0.4	0.5	0.4	0.3	0.4	0.5	0.4	0.4	0.6
시간제 근로	고졸 미만	8.8	10.2	12.2	12.1	13.3	14.2	15.2	16.8	19.2	20.2
	고 졸	6.1	7.3	8.0	7.7	8.0	8.6	9.0	10.3	10.8	11.5
	전문대졸	2.5	3.6	3.3	3.1	3.9	3.6	2.5	3.5	4.3	4.3
	대졸 이상	3.7	3.8	4.5	4.0	4.4	4.0	4.0	4.5	5.3	5.0

주 : 각 학력 내 임금근로자 중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III-5> 고용형태별 연령 구성(2011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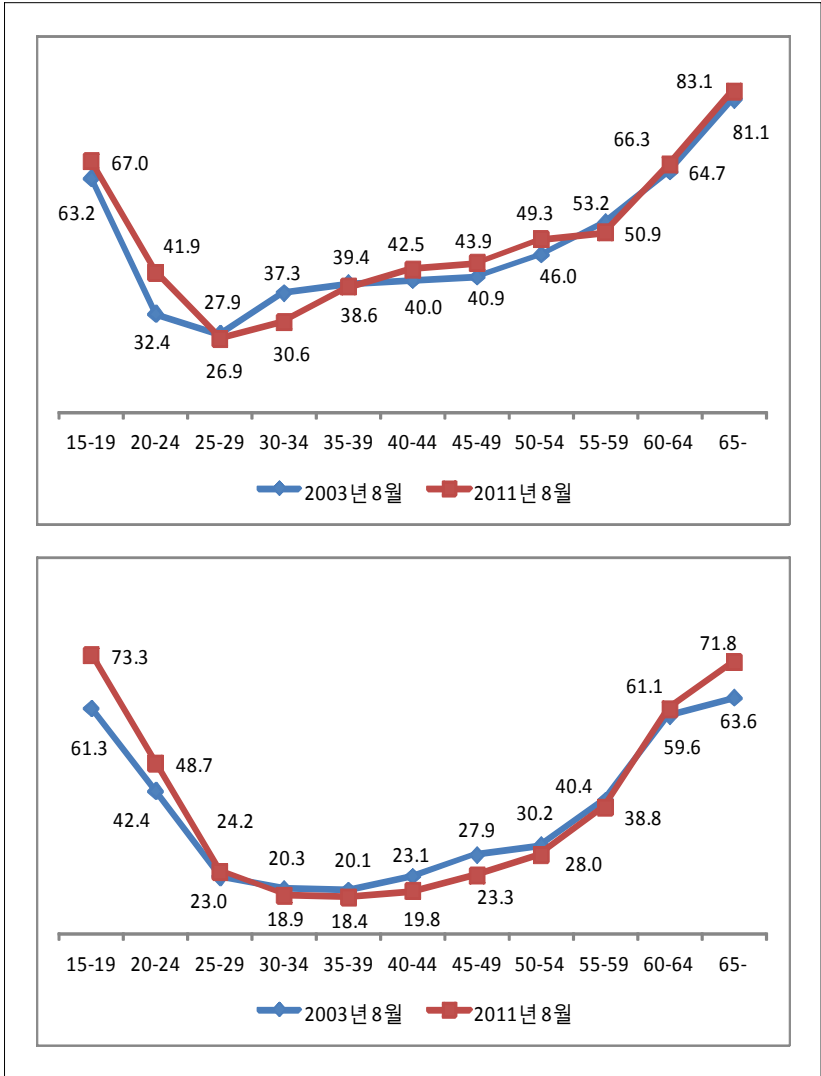
(단위 : %)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 체
비정규직	20.7	19.4	23.6	20.2	16.0	100.0
한시적 근로	23.2	21.3	21.2	17.5	16.8	100.0
기간제	24.3	20.4	19.8	16.7	18.9	100.0
반복갱신	20.0	35.2	25.6	14.5	4.8	100.0
기대불가	19.2	16.3	26.5	24.9	13.3	100.0
비전형 근로	9.0	15.8	27.2	27.9	20.1	100.0
파견	21.2	18.8	27.4	18.7	13.9	100.0
용역	10.6	10.6	16.4	28.0	34.5	100.0
특수형태근로	9.0	26.5	37.1	21.7	5.8	100.0
가정 내 근로	8.7	30.6	22.8	20.8	17.2	100.0
일일근로	5.6	11.4	28.4	33.9	20.7	100.0
시간제 근로	25.8	15.0	19.7	16.6	22.9	100.0
정규직	21.0	31.5	28.1	16.0	3.5	100.0
임금근로자 전체	20.9	27.4	26.5	17.5	7.8	100.0

- 연령별로 보면 40대에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데, 한시적 근로자는 15~29세에, 비전형 근로자는 50대에, 시간제 근로자는 15~29세에 가장 많이 분포함(표 III-5 참조).
 - 반면 정규직은 30대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
 - 정규직 중 3.5%만이 60세 이상이지만, 비정규직은 16.0%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그림 III-2]는 5세 단위로 연령을 구분하여 성별로 2003년 8월과 2011년 8월 사이의 비정규직 비중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남녀 모두 U자형의 비정규직 비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 <표 III-2>에 따르면 가장 최근 시점인 2011년과 남녀별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비슷한 해가 2003년이므로 두 시점을 비교대상으로 선택함.

<그림 III-2> 5세 단위 구간별 · 성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단위 : %)



주 : 위는 남성, 아래는 여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U자형 곡선이 나타나는 이유는 노동시장 정착 과정 중인 청년기에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이 높다가 정착에 성공하면서 비정규직 비중이 낮아진 후, 남성의 경우는 50대부터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면서 비정규직 비중이 상승하고 여성은 출산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장했다가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화가 발생하기 때문임.
-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 저점은 2003년과 2011년 모두 35~39세인 것으로 나타났고, 50~54세부터는 뚜렷이 증가함. 노동시장 진입연령대와 퇴장 연령대에서는 2003년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더 증가했으나, 주력 연령대에서는 2003년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떨어져 더 강한 U자형으로 변화됨.
- 여성은 2003년과 2011년 모두 비정규직 비중 저점이 남성보다 10살 빠른 25~29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30~34세 비정규직 비중은 25~29세에 비해 2003년에는 뚜렷이 증가했지만, 2011년에는 약간의 비정규직 비중 증가만 있다는 차이가 있음.
 - 여기서는 두 해의 수치만 제시되었지만, 나머지 연도들도 보면 30~34세 여성 비정규직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였는데, 이와 같은 수치 변화는 여성의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늦춰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추측됨.
- 60세 이상에도 일을 계속하는 경우 남녀 모두 절반 이상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비정규직이며, 2011년 기준 65세 이상 일자리는 남녀 모두 60% 이상이 비정규직 일자리인 것으로 추정됨.
- 50대 이상 고연령층은 세부형태를 가리지 않고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반면, 30세 미만 청년층의 경우 기간제 비중은 17.7%, 시간제 비중은 12.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비전형 근로 형태의 비정규직 비중은 6.0%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표 III-6 참조).
- 기간제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2004년 또는 2005년 정도를 정점으로 2008년까지 감소하다가 국제금융위기가 있는 2009년에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후 2010년에 감소했다가 2011년 다시 소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표 III-6 참조).

- 파견은 50대 이상에서 2008년 이후 비중이 증가하다가 2011년 들어 주춤하고 있으며, 용역은 2008년 이후 비중이 전 연령대에서 다소 감소하고 있다가 2011년 들어 소폭 증가함(표 III-6 참조).
 - 특수형태근로는 전 연령대에서 2002년에 비해 2011년 비중이 감소함. 일일근로는 50대 이상에서 뚜렷한 비중 증가를 보였는데, 50대는 2002년 5.9%에서 2011년 10.7%로 증가하였고 60세 이상에서는 같은 시기 8.6%에서 14.6%로 증가함.
- 시간제는 60세 이상의 경우 2002년 12.0%에서 2011년 28.6%로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15~29세에서도 2002년 5.8%에서 2011년 12.0%로 거의 두 배 증가함(표 III-6 참조).
 - 노동시장 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 30, 40, 50대에서는 증가하지 않거나 소폭 증가했음.
 - 즉, 주로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퇴장하는 연령대에서 빠르게 증가했으며, 주력 연령대에서는 증가 폭이 크지 않음.

<표 III-6> 연령별·고용형태별 비중 추이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비정규직	15~29세	23.9	31.7	35.0	35.0	33.0	33.5	32.9	34.0	33.5	34.0
	30~39세	22.5	26.3	32.1	30.4	29.8	29.8	26.7	25.2	23.3	24.3
	40~49세	27.9	31.1	35.9	36.3	34.1	34.1	31.6	32.3	29.8	30.5
	50~59세	37.0	39.9	43.1	42.8	41.9	42.6	39.6	40.6	39.3	39.6
	60세 이상	55.2	65.9	67.8	66.6	69.0	65.9	65.7	72.7	69.6	70.5
한시적 근로	15~29세	14.9	23.3	26.2	26.4	25.4	24.1	23.0	23.9	22.2	21.8
	30~39세	11.1	16.7	21.2	20.0	20.3	19.9	17.2	15.4	14.1	15.3
	40~49세	14.1	19.0	22.4	22.4	20.6	18.9	17.0	16.9	15.2	15.7
	50~59세	19.3	24.9	27.6	25.8	25.7	23.0	21.2	22.4	19.7	19.7
	60세 이상	28.2	40.5	40.7	40.6	41.9	38.9	38.1	49.8	43.3	42.5
기간제	15~29세	11.5	19.6	19.4	21.8	20.1	18.8	17.7	20.2	17.8	17.7
	30~39세	7.9	12.8	13.6	14.8	14.5	13.8	12.3	12.2	10.2	11.4
	40~49세	10.0	14.4	14.7	15.4	14.8	12.3	11.3	12.2	10.3	11.3
	50~59세	14.9	20.0	19.5	19.4	19.2	16.1	14.5	17.5	15.1	14.6
	60세 이상	21.8	33.4	30.9	30.5	33.9	29.5	29.2	43.3	36.4	37.1
비전형 근로	15~29세	7.4	7.2	8.3	7.0	5.7	6.9	6.3	6.5	6.0	6.0
	30~39세	11.0	9.8	11.1	10.3	9.3	9.8	9.3	9.6	8.3	8.0
	40~49세	13.5	12.9	14.4	14.2	14.4	15.4	14.3	15.4	13.8	14.2
	50~59세	19.6	18.0	19.2	19.5	20.3	22.2	21.0	21.2	22.1	22.2
	60세 이상	31.0	32.5	35.7	32.1	34.6	35.5	35.0	31.5	33.0	35.8
파견	15~29세	1.0	0.8	0.9	1.0	0.9	1.4	0.9	1.5	1.5	1.1
	30~39세	0.6	0.7	0.7	0.8	0.6	0.9	0.8	0.9	0.8	0.8
	40~49세	0.4	0.7	0.9	0.6	0.8	1.1	0.9	0.9	1.0	1.2
	50~59세	0.5	0.3	0.6	0.6	1.2	0.8	0.8	0.7	1.4	1.3
	60세 이상	0.3	1.3	0.9	0.8	1.4	1.1	0.9	1.1	2.6	2.0
용역	15~29세	0.8	1.3	1.4	1.5	1.4	1.8	1.9	1.9	1.8	2.0
	30~39세	1.0	0.7	1.2	1.2	1.1	1.5	1.7	1.6	1.3	1.4
	40~49세	1.8	1.8	1.8	2.1	2.5	2.6	2.4	2.4	2.2	2.5
	50~59세	6.6	6.1	6.8	6.5	6.9	7.5	8.0	6.8	6.4	6.3
	60세 이상	13.8	14.1	15.8	14.7	17.4	18.0	19.2	16.3	15.3	16.4
특수형태 근로	15~29세	4.2	3.0	3.8	2.5	1.8	1.7	2.1	1.5	1.3	1.5
	30~39세	6.2	5.2	5.4	5.1	4.5	4.4	4.0	4.4	4.0	3.4
	40~49세	6.5	4.9	5.7	5.3	5.3	5.5	5.2	5.5	4.7	4.8
	50~59세	5.5	3.6	4.4	3.9	4.3	4.2	3.2	3.8	3.8	4.3
	60세 이상	4.5	3.5	4.5	3.8	4.9	4.1	3.2	3.1	2.5	2.9
일일근로	15~29세	0.9	2.2	2.1	2.2	1.7	1.9	1.5	1.7	1.3	1.5
	30~39세	2.1	2.7	3.3	3.2	2.8	3.0	2.9	2.6	2.1	2.3
	40~49세	4.1	5.3	5.8	6.2	5.8	6.5	6.2	6.8	5.7	5.9
	50~59세	5.9	7.5	7.4	8.4	7.7	10.2	10.1	10.3	10.8	10.7
	60세 이상	8.6	10.8	13.5	11.5	10.2	13.0	12.5	11.7	12.5	14.6
시간제 근로	15~29세	5.8	7.4	7.3	8.0	7.9	8.9	8.8	10.1	11.5	12.0
	30~39세	5.0	5.5	6.0	5.3	5.7	5.1	5.0	5.2	5.6	5.3
	40~49세	5.2	5.4	6.8	5.9	6.3	6.1	6.3	7.8	7.4	7.2
	50~59세	6.0	6.3	7.7	7.1	6.9	7.6	7.5	7.7	8.4	9.2
	60세 이상	12.0	14.6	17.2	16.3	19.9	19.8	21.7	23.1	28.4	28.6

주: 임금근로자 중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 비정규직의 사업체 특성

- <표 III-7>은 2011년 8월 조사를 이용해 고용형태별 산업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사업서비스업(14.5%)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건설업과 도소매업에도 많은 반면, 정규직은 제조업(25.3%)에 가장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은 특정 산업에 특정 고용형태가 집중되는 분포를 보임.
 - 기간제는 사업서비스업(19.9%)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교육(12.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1%) 등에도 많이 있음.
 - 비전형 근로는 건설업(30.7%)과 사업서비스(20.9%)에 절반 이상이 모여 있음.
 - 세부적으로 보면 용역은 특성상 사업서비스업에 대부분(93.9%)이 몰려 있으며, 파견도 사업서비스업(41.3%)에 절반 가까이 있고, 도소매업(15.6%)의 비중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특수형태근로는 금융보험업(38.6%), 도소매업(28.9%), 교육서비스업(12.4%)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가정 내 근로는 제조업(74.7%)에, 일일근로는 건설업(51.7%)에 몰려 있음.
 - 시간제 근로의 경우 도소매업(16.1%), 숙박 및 음식점업(15.2%), 교육서비스업(14.7%), 보건 및 사회복지업(11.8%) 등에 몰려 있음.

- 다음으로 각 산업 내에서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37.0%)→2011년(34.2%)에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및 여가서비스업 내에서는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함(표 III-8 참조).
 - 2011년 기준으로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79.6%로 전체 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절반 이상인 산업은 사업서비스업, 농림어업, 건설업, 예술 및 여가, 가구 내 서비스업임.
 - 건설업의 경우 임금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 비중이 2004년 31.1%에서 2011년 10.8%로 눈에 띄게 감소함. 이는 주로 기간제 중 1개월 미만의 초단기 계약을 하는 근로자의 감소와 연관되어 있음.
 - 기간제 근로의 경우 비교적 전체 산업에서 고루 비중이 증가함.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16.7%→23.6%), 도소매업(9.8%→13.1%), 보건 및 사회복지업(3.3%→16.3%), 공공행정(8.3%→14.3%), 예술 및 여가(11.4%→23.4%) 등에서 두드러지게 비중이 증가하였음.

<표 III-8> 산업별 · 고용형태별 비중 변화(2004년→2011년)

(단위 : %)

	비정규직		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한시적 근로 전체		기간제			
	2004. 8	2011. 8	2004. 8	2011. 8	2004. 8	2011. 8	2004. 8	2011. 8
농어업	75.6	69.3	46.1	18.9	39.6	11.0	17.0	13.7
광업	16.5	9.6	16.5	5.7	2.7	5.7	0.0	0.0
제조업	23.3	15.6	17.9	11.7	10.6	7.7	3.1	2.2
전기 등	23.1	13.1	20.8	12.0	13.2	8.6	3.1	3.0
하수 등	21.5	14.2	17.7	12.2	10.6	11.3	1.3	0.3
건설업	63.3	51.4	37.6	14.8	31.1	10.8	7.3	6.0
도소매	36.1	30.9	21.5	11.8	12.4	6.6	9.8	13.1
운수	28.1	20.7	17.0	14.2	10.1	10.0	2.6	2.4
숙박음식	42.6	40.2	28.4	16.9	15.6	7.8	16.7	23.6
출판 등	31.4	20.6	27.0	17.4	20.4	14.5	3.0	1.9
금융보험	44.1	41.6	20.5	13.0	14.9	9.1	2.6	2.5
부동산임대	43.8	43.4	30.6	26.3	18.0	20.5	7.6	9.6
전문과학	27.7	18.4	22.4	16.0	16.8	11.9	2.7	2.4
사업서비스	77.5	79.6	47.6	54.2	37.4	48.8	5.2	7.7
공공행정	22.5	29.1	18.9	27.9	15.8	27.1	8.3	14.3
교육	37.2	41.1	26.6	28.0	20.6	24.7	14.3	18.6
보건사회복지	26.7	37.6	24.0	30.1	17.5	26.1	3.3	16.3
예술여가	45.0	51.7	35.8	29.5	27.7	23.0	11.4	23.4
협회, 개인 서비스	30.2	27.9	17.9	13.1	11.7	8.9	8.8	12.2
가구내 등	78.3	58.9	36.6	16.7	20.1	5.9	42.9	39.9
국제	28.5	16.7	25.8	16.7	15.5	16.7	2.6	11.1

주 : 1) 각 산업 내에서의 임금근로자 중 비중임.

2) 9차 산업분류 자료는 2004년 이후 제공되어 2004년과 가장 최근인 2011년을 비교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임금근로자 중 비전형 근로의 비중은 사업서비스업, 건설업, 금융보험업에서 증가함(표 III-9 참조).
 - 파견근로의 경우 임금근로자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 전체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사업서비스업에서는 그 비중이 높았는데, 특히 2004년 4.7%에서 2011년에는 7.5%로 증가함.
 -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절반 이상의 임금근로자가 용역근로형태로 일하고 있는데, 2004년(56.9%)에 비해 2011년 58.0%로 증가함.
 - 한편 특수형태근로의 경우 금융보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2004년에 비해 2011년에는 2.9%포인트 증가하여 28.7%를 기록함.
 - 건설업 임금근로자 가운데 일일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4.0%에서 2011년 35.7%로 증가함.
 - 한편, 2011년 농림어업 임금근로자의 절반이 일일근로의 형태로 나타남(49.0%).

<표 III-9> 비전형 근로의 산업별·고용형태별 비중 변화(2004년→2011년)

(단위 : %)

	비전형 근로									
	전 체		파 건		용 역		특수형태근로		일일근로	
	2004. 8	2011. 8	2004. 8	2011. 8	2004. 8	2011. 8	2004. 8	2011. 8	2004. 8	2011. 8
농어업	30.7	49.2	0.0	0.0	0.0	0.0	2.1	0.0	28.2	49.0
광 업	0.0	7.2	0.0	0.0	0.0	3.3	0.0	0.0	0.0	3.9
제조업	5.9	3.6	0.3	0.3	0.1	0.1	1.3	0.3	2.5	2.2
전기 등	4.0	1.0	0.0	0.4	0.0	0.0	1.7	0.0	0.0	0.7
하수 등	2.5	2.0	0.0	0.0	0.0	1.0	2.5	0.0	0.0	1.0
건설업	26.7	36.4	0.8	0.4	1.0	0.5	2.2	0.1	24.0	35.7
도소매	13.0	12.0	1.5	1.5	0.0	0.1	9.1	8.4	2.2	2.1
운 수	12.3	6.0	0.2	0.7	0.6	0.3	9.9	2.7	2.1	2.4
숙박음식	8.3	8.4	0.3	0.7	0.3	0.4	2.6	0.3	5.4	7.0
출판 등	5.6	3.2	1.4	2.4	0.1	0.2	3.1	0.5	0.2	0.1
금융보험	26.2	29.0	0.3	0.1	0.0	0.0	25.8	28.7	0.1	0.2
부동산임대	12.5	15.7	1.5	1.1	2.7	4.6	6.8	9.3	1.6	0.8
전문과학	5.8	1.4	0.8	0.4	0.6	0.0	3.8	0.2	0.5	0.6
사업서비스	65.8	68.5	4.7	7.5	56.9	58.0	2.4	0.8	6.3	5.3
공공행정	2.7	0.7	0.5	0.4	0.2	0.0	0.5	0.0	0.7	0.2
교 육	7.3	6.2	0.1	0.3	0.0	0.0	6.5	5.6	0.4	0.1
보건사회복지	1.4	2.3	0.2	1.6	0.1	0.3	0.7	0.0	0.2	0.4
예술 여가	8.9	9.4	0.5	0.0	0.2	0.5	3.5	5.5	5.4	4.1
협회, 개인 서비스	10.8	9.0	1.1	0.4	0.7	0.0	5.6	4.6	3.3	5.1
가구내 등	43.9	29.0	0.0	0.0	0.0	0.0	6.5	0.0	26.9	27.5
국 제	4.8	0.0	0.0	0.0	0.0	0.0	4.8	0.0	0.0	0.0

주 : 1) 각 산업 내에서의 임금근로자 중 비중임.

2) 9차 산업분류 자료는 2004년 이후 제공되어 2004년과 가장 최근인 2011년을 비교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표 III-10>은 2011년 8월 조사를 이용해 고용형태별 직종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있는 직종은 단순노무직(31.2%)으로 두 번째로 높은 분포를 보이는 전문가의 두 배에 달함.
 - 정규직은 사무직(26.8%)과 전문가(24.5%)에 많이 있으며, 단순노무직에는 9.3%가 있음.
 - 기간제의 경우 단순노무직에 29.1%가 분포하고 있는데 전문가와 사무직에도 약 40% 정도가 있음.
 - 한시적 근로 중 반복갱신자는 정규직과 별로 다르지 않은 직종 분포를 보이는 것이 특징임.
 - 비전형 근로의 세부형태들은 일부 직종에 몰려 있는 것이 특징임. 특히 청소·경비와 같은 일자리가 많은 용역근로는 단순노무직(65.6%)에 많이 있으며, 보험업, 쿠팡, 학습지교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는 판매직(62.4%)에 많이 있고, 전문가(16.4%), 단순노무직(11.0%)에도 상당수 분포함.
 - 가정 내 근로(69.4%), 일일근로(52.1%)도 단순노무직에 절반 이상 분포하고 있음.
 - 시간제 근로는 단순노무직(37.6%)에 뒤이어 전문가(19.3%), 서비스업(18.9%), 판매업(12.2%)에 분포하고 있음.

<표 III-10> 고용형태별 직업 분포(2011년 8월)

(단위 : %)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	농어업 숙련	기능직	조립· 조작	단순 노무	전 체
임금근로자	2.2	22.0	21.5	9.0	8.3	0.4	9.2	10.7	16.8	100.0
정규직	2.9	24.5	26.8	8.2	6.5	0.3	8.6	13.1	9.3	100.0
비정규직	0.7	17.3	11.4	10.6	11.9	0.5	10.4	6.0	31.2	100.0
한시적 근로	1.1	22.5	17.1	9.9	5.3	0.5	8.0	7.4	28.2	100.0
기간제	1.1	23.9	17.7	9.3	4.2	0.5	7.1	7.1	29.1	100.0
반복갱신	2.4	28.1	24.2	6.2	7.3	0.3	8.5	9.9	13.2	100.0
갱신불가	0.2	9.5	8.2	16.4	10.6	0.9	12.7	7.5	34.2	100.0
비전형 근로	0.2	6.2	3.0	6.2	18.5	0.7	15.6	5.7	43.9	100.0
파견	0.2	17.8	10.3	15.0	16.4	0.3	4.9	8.9	26.2	100.0
용역	0.7	1.2	5.5	5.2	5.1	0.5	6.4	10.2	65.3	100.0
특수형태근로	0.2	16.4	2.5	2.8	62.4	0.0	0.9	3.9	11.0	100.0
가정 내 근로	0.0	15.5	3.3	3.0	3.1	0.0	2.0	3.8	69.4	100.0
일일근로	0.0	0.6	0.3	7.3	1.7	1.3	33.6	3.2	52.1	100.0
시간제 근로	0.2	19.3	7.3	18.9	12.2	0.1	3.1	1.5	37.6	100.0

○ <표 III-11>은 직종 안에서 각 고용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노무직(62.9%→63.7%)과, 판매업(47.4%→49.0%)에서 증가함

- 2004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7.0%에서 2011년 34.2%로 감소한 영향을 받아 대부분의 직종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
- 고용형태별로 단순노무직 내 비중 변화를 보면, 한시적 근로에서는 감소한 반면, 비전형 근로, 시간제 근로에서 증가함.
- 특히 단순노무직은 시간제 근로(16.2%→21.8%)와 일일근로(13.8%→17.1%), 용역(11.8%→14.8%)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짐.
- 시간제 근로는 서비스업과 판매업에서도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이 크게 증가함.
- 특수형태근로의 경우 판매업에서의 비중만 2004년 대비 3.6%포인트

- 트 증가하여 2011년 25.2%를 기록함.
- 일일근로의 경우 농어업숙련과 기능직이 각각 20.0%, 20.1%로 2004년 대비 증가함.
 - 이와 같이 전체적인 비정규직 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직종에 따라서는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표 III-11> 직종별 · 고용형태별 비중 변화(2004년→2011년)

(단위 : %)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	농어업 숙련	기능직	조립 조작원	단순 노무
비정규직	2004	18.7	29.4	23.0	40.4	47.4	65.6	45.4	23.1	62.9
	2011	11.7	26.9	18.2	40.3	49.0	50.7	38.6	19.1	63.7
한시적 근로	2004	17.2	22.8	19.7	27.1	20.7	45.0	28.8	17.2	37.6
	2011	10.3	20.1	15.6	21.6	12.5	27.9	17.1	13.7	33.0
기간제	2004	12.1	16.2	14.0	17.0	12.4	36.1	21.9	9.9	27.4
	2011	7.9	16.5	12.5	15.8	7.6	20.6	11.8	10.1	26.4
비전형 근로	2004	2.7	5.7	3.5	10.4	26.7	23.2	18.4	7.5	31.5
	2011	1.5	3.9	2.0	9.5	30.8	26.0	23.6	7.4	36.2
파견	2004	0.4	0.5	0.4	0.8	2.6	0.8	1.2	0.4	0.9
	2011	0.1	0.9	0.5	2.0	2.2	0.9	0.7	0.9	1.7
용역	2004	0.5	0.1	0.6	1.9	1.2	2.9	1.9	2.2	11.8
	2011	1.2	0.2	0.9	2.2	2.3	5.1	3.3	3.6	14.8
특수형태 근로	2004	1.8	4.5	1.9	3.6	21.6	2.0	2.0	3.9	3.5
	2011	0.2	2.5	0.4	1.2	25.2	0.0	0.4	1.6	2.6
일일근로	2004	0.0	0.3	0.1	5.0	1.8	17.6	13.3	0.9	13.8
	2011	0.0	0.1	0.1	4.5	1.2	20.0	20.1	1.6	17.1
시간제 근로	2004	0.2	7.0	2.8	13.6	9.7	8.3	4.7	1.4	16.2
	2011	0.7	8.5	3.3	20.4	14.2	3.3	3.3	1.4	21.8

주: 1) 임금근로자 중 비중임.

2) 6차 직종분류 자료는 2004년 이후 제공되어 2004년과 가장 최근인 2011년을 비교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사업체 규모별로 비정규직 분포를 보면 비정규직은 10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은 10~99인 규모의 사업체에 많이 분포함(표 III-12 참조).
 - 비정규직은 1~4인(25.8%), 10~29인(24.7%) 규모의 사업체에 많이 있음.
 - 300인 이상 사업체에는 반복갱신이 가능한 한시적 근로자의 14.3%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정규직(14.1%)과 비슷한 분포임.
 -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시간제 근로는 1~4인과 5~9인의 소규모 사업체에 대부분 분포함.

<표 III-12> 고용형태별 사업체 규모 분포(2011년 8월)

(단위 : %)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전 체
비정규직	25.8	19.3	24.7	18.3	6.3	5.6	100.0
한시적 근로	16.6	16.7	26.8	22.5	8.6	8.9	100.0
기간제	13.6	15.2	28.6	24.3	8.9	9.4	100.0
반복갱신	7.8	16.4	24.5	25.0	12.0	14.3	100.0
기대불가	41.7	25.7	17.7	9.0	4.2	1.7	100.0
비전형 근로	30.7	21.9	26.0	16.3	3.7	1.3	100.0
파견	32.2	13.5	25.3	19.7	6.3	3.0	100.0
용역	20.0	19.2	32.7	19.7	6.1	2.4	100.0
특수형태근로	14.8	9.5	35.3	34.6	4.5	1.3	100.0
가정 내 근로	71.0	12.7	3.2	6.6	4.5	2.0	100.0
일일근로	45.2	33.5	17.2	2.8	1.0	0.3	100.0
시간제 근로	43.4	19.8	20.5	10.3	2.7	3.3	100.0
정규직	15.7	15.8	21.6	20.6	12.1	14.1	100.0
임금근로자	19.2	17.0	22.7	19.8	10.1	11.2	100.0

주: 임금근로자 중 비중임.

- 고용형태별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중을 보면,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높게 나타나 1~4인의 경우 46.1% (2011년)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남(표 III-13 참조).

- 전체적으로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임.
- 기간제 근로는 2003년 소규모 사업체에서 비중이 높았지만, 2006년 이후 중규모 사업체에서 비중이 증가했고 소규모 사업체와 300인 이상 사업체는 10% 초반대의 낮은 비중을 보이는 형태로 변함.
- 시간제근로와 일일근로는 대부분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대부분임.

<표 III-13> 사업체규모별 · 고용형태별 비중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비정규직	1~4인	46.6	48.8	50.4	46.6	47.2	44.4	44.5	45.6	46.1
	5~9인	38.5	42.6	40.5	38.5	38.2	39.1	40.3	37.6	38.8
	10~29인	33.7	38.4	37.5	37.8	38.2	36.4	40.3	36.0	37.3
	30~99인	28.7	33.5	33.3	32.8	33.0	29.9	32.0	31.6	31.6
	100~299인	21.8	29.4	28.8	27.7	28.9	24.7	23.5	21.0	21.2
	300인 이상	14.7	20.4	19.7	20.0	19.5	17.3	17.1	15.4	17.2
한시적 근로	1~4인	27.6	27.6	29.3	25.3	21.4	20.8	18.7	17.1	17.0
	5~9인	24.1	27.1	24.4	24.6	21.3	21.0	21.0	17.8	19.3
	10~29인	21.9	25.2	24.3	25.2	24.4	22.3	26.5	22.9	23.2
	30~99인	19.3	23.9	23.3	23.2	23.2	19.7	22.4	22.2	22.3
	100~299인	17.2	23.5	23.8	22.6	24.9	20.5	19.4	17.0	16.7
	300인 이상	12.8	18.1	17.1	18.2	17.7	16.3	15.5	14.2	15.6
기간제	1~4인	20.5	17.6	18.5	17.7	13.4	11.2	10.9	10.2	10.6
	5~9인	19.3	18.5	17.2	18.4	14.2	14.1	15.2	11.9	13.6
	10~29인	17.7	18.0	19.4	19.2	18.2	17.5	22.6	18.5	19.2
	30~99인	15.8	17.5	19.3	18.1	17.5	15.6	20.0	18.9	18.7
	100~299인	14.2	16.5	20.0	17.7	18.6	16.4	17.0	14.2	13.4
	300인 이상	11.1	12.7	14.1	13.8	13.7	13.0	14.0	11.1	12.8
비전형 근로	1~4인	18.3	19.5	18.6	19.2	21.4	18.8	20.7	21.6	22.2
	5~9인	13.2	15.6	15.5	13.8	16.4	16.8	17.8	16.8	17.9
	10~29인	13.2	15.2	14.2	14.7	16.2	16.5	16.7	14.9	15.9
	30~99인	11.4	12.7	12.1	11.8	12.4	12.0	12.4	11.9	11.4
	100~299인	6.5	7.8	7.0	6.7	5.8	5.4	5.6	5.0	5.1
	300인 이상	2.3	3.0	2.9	2.4	2.3	1.4	1.9	1.9	1.6
파견	1~4인	1.0	1.1	1.1	0.9	1.3	1.0	1.2	1.7	1.9
	5~9인	0.5	0.8	0.8	0.7	0.9	0.8	0.6	1.1	0.9
	10~29인	0.8	0.7	0.8	0.9	1.1	0.9	1.2	1.3	1.3
	30~99인	0.5	0.9	0.7	1.0	1.5	1.1	1.1	1.4	1.1
	100~299인	0.8	0.8	0.6	1.3	1.0	1.0	1.1	0.9	0.7
	300인 이상	0.3	0.3	0.6	0.4	0.6	0.2	0.6	0.5	0.3
유역	1~4인	1.2	2.1	2.0	2.8	3.3	4.2	3.5	4.0	4.2
	5~9인	2.7	3.7	3.4	4.1	4.5	5.0	4.8	4.8	4.4
	10~29인	3.5	3.6	4.0	4.5	5.5	5.8	5.5	4.6	5.4
	30~99인	3.5	3.4	3.5	3.4	3.9	3.7	4.0	3.5	3.7
	100~299인	2.1	2.4	2.7	2.5	2.5	2.4	1.9	1.6	2.3
	300인 이상	0.9	1.0	0.8	1.0	0.7	0.3	0.6	0.7	0.8
특수형태근로	1~4인	4.8	4.4	3.5	4.4	4.3	3.1	3.4	2.9	3.1
	5~9인	3.1	4.0	3.3	2.3	2.4	1.8	2.4	1.6	2.0
	10~29인	5.3	6.6	5.5	5.7	5.6	5.8	5.8	5.0	5.3
	30~99인	6.2	7.2	6.8	6.1	6.2	6.2	6.2	6.1	6.0
	100~299인	3.0	3.9	3.2	2.3	1.9	1.9	2.0	1.9	1.5
	300인 이상	0.9	1.1	1.3	0.9	0.7	0.7	0.7	0.6	0.4
일일근로	1~4인	8.9	10.2	10.7	9.3	12.3	10.8	12.4	12.4	13.0
	5~9인	7.4	7.7	8.6	7.3	9.1	9.8	10.5	9.5	10.8
	10~29인	3.9	4.5	4.2	4.1	4.6	4.6	4.4	3.9	4.2
	30~99인	1.3	1.3	1.3	1.5	1.2	1.2	1.3	1.0	0.8
	100~299인	0.4	0.7	0.7	0.5	0.5	0.1	0.6	0.5	0.5
	300인 이상	0.2	0.3	0.2	0.2	0.2	0.1	0.0	0.0	0.1
시간제 근로	1~4인	15.1	17.5	16.7	17.1	18.1	17.4	20.1	21.5	22.0
	5~9인	8.3	9.0	8.4	8.7	9.1	9.4	10.6	11.5	11.3
	10~29인	4.9	6.0	5.7	6.3	5.7	6.5	7.6	8.3	8.8
	30~99인	3.3	3.5	3.2	3.5	3.7	3.7	4.5	5.2	5.1
	100~299인	2.4	2.3	1.9	2.3	2.5	2.2	3.0	2.5	2.6
	300인 이상	1.8	2.0	1.8	1.8	1.7	1.9	1.9	2.8	2.9

주 : 임금근로자 중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종사상 지위별로 고용형태별 분포를 보면 정규직은 상용직이 75.1% 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34.3%에 불과함(표 III-14 참조).
 - 비정규직은 임시직 비중이 가장 커 40.7%를 차지하고 있고, 일용직은 24.9%의 분포를 보임.
 - 정규직의 24.9%가 임시·일용직임.
 - 반복갱신이 가능한 한시적 근로자는 상용직 비중은 74.8%로 정규직의 상용직 비중보다 높은 분포인 반면, 갱신불가한 한시적 근로자는 6.9%에 불과하며 임시직의 비중(72.3%)이 매우 높음.
 - 파견, 용역의 상용직 비중은 비전형 근로 가운데 높은 수준인 반면, 일일근로, 가정 내 근로는 일일근로에 대부분 분포함.
 - 특수형태근로자의 대부분(89.0%)은 임시근로에 분포함.

<표 III-14> 고용형태별 종사상지위별 규모 및 비중(2011년 8월)

(단위: 천 명, %)

	규모			비중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임금근로자	10,710	5,031	1,769	100.0	61.2	28.7	10.1
정규직	8,651	2,590	274	100.0	75.1	22.5	2.4
비정규직	2,058	2,441	1,495	100.0	34.3	40.7	24.9
한시적 근로	1,858	1,318	267	100.0	54.0	38.3	7.7
기간제	1,574	925	168	100.0	59.0	34.7	6.3
반복갱신	254	78	7	100.0	74.8	23.0	2.2
갱신불가	30	315	91	100.0	6.9	72.3	20.9
비전형 근로	565	816	1,046	100.0	23.3	33.6	43.1
파견	131	59	7	100.0	66.5	30.0	3.4
용역	412	203	58	100.0	61.2	30.2	8.6
특수형태근로	17	546	51	100.0	2.8	89.0	8.3
가정 내 근로	5	12	58	100.0	7.1	15.9	77.1
일일근로	0	0	962	100.0	0.0	0.0	100.0
시간제 근로	134	986	582	100.0	7.9	57.9	34.2

주: 임금근로자 중 비중임.

- 고용형태별로 종사상 지위분포의 추세를 보면, 비정규직 내 상용직의 분포는 2009년 이후 증가한 반면, 일용직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표 III-15 참조).
 - 상용직 증가 주도로 임금근로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한시적 근로 가운데 기간제와 반복갱신에서 상용직 증가가 뚜렷함.
 - 파견(2004년 51.8%→2011년 66.5%), 용역(2004년 39.4%→2011년 61.2%)의 상용직 비중이 크게 증가함.
 - 반면, 특수형태 근로의 상용직 비중은 2004년 18.5%에서 2011년 2.8%로 크게 감소하였고, 임시직의 비중은 66.4%→89.0%고 크게 증가함.

<표 III-15> 고용형태별 · 종사상지위별 비중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정규직	상용	64.8	66.2	67.6	67.1	68.1	70.3	73.0	72.8	75.1
	임시	32.5	30.9	29.6	29.6	28.8	26.3	23.9	24.6	22.5
	일용	2.7	2.8	2.8	3.3	3.1	3.3	3.1	2.6	2.4
비정규직	상용	22.8	29.9	27.6	29.4	32.1	29.5	28.6	33.0	34.3
	임시	38.5	36.5	37.9	38.3	37.0	39.7	44.3	41.0	40.7
	일용	38.7	33.6	34.6	32.3	30.9	30.7	27.1	25.9	24.9
한시적 근로	상용	30.0	38.7	37.2	40.9	47.0	44.2	42.5	52.4	54.0
	임시	35.6	34.5	35.2	34.1	34.4	38.5	45.3	38.6	38.3
	일용	34.5	26.7	27.6	25.0	18.6	17.3	12.2	9.0	7.7
기간제	상용	31.5	39.9	43.2	42.9	50.1	50.8	48.5	59.3	59.0
	임시	29.1	27.5	26.6	27.6	29.7	32.3	42.5	34.3	34.7
	일용	39.4	32.6	30.2	29.5	20.2	16.9	9.0	6.4	6.3
반복갱신	상용	58.7	68.6	54.7	67.4	71.3	66.7	73.9	79.3	74.8
	임시	35.0	29.1	39.1	30.9	24.8	29.5	22.8	18.7	23.0
	일용	6.3	2.2	6.2	1.6	3.9	3.8	3.3	2.0	2.2
갱신불가	상용	0.3	0.2	0.2	0.4	0.7	0.5	0.1	0.0	6.9
	임시	78.8	74.0	73.3	78.1	72.0	71.3	68.1	73.4	72.3
	일용	20.9	25.9	26.5	21.5	27.2	28.2	31.8	26.6	20.9
비전형 근로	상용	14.8	19.1	15.1	14.8	17.7	17.3	20.0	23.2	23.3
	임시	39.5	36.8	39.2	40.8	36.6	38.8	36.9	34.3	33.6
	일용	45.6	44.1	45.7	44.3	45.8	43.9	43.1	42.5	43.1
파견	상용	44.7	51.8	46.9	46.6	51.4	50.9	59.1	66.1	66.5
	임시	42.0	32.9	41.2	38.2	31.8	37.5	35.3	29.6	30.0
	일용	13.3	15.4	12.0	15.2	16.7	11.6	5.6	4.3	3.4
용역	상용	30.5	39.4	37.0	41.6	45.6	44.2	54.9	62.0	61.2
	임시	53.0	44.1	46.3	41.5	38.5	40.1	34.6	30.6	30.2
	일용	16.5	16.5	16.7	16.9	15.9	15.7	10.4	7.4	8.6
특수형태근로	상용	15.7	18.5	11.7	2.9	4.1	3.3	1.8	1.8	2.8
	임시	67.1	66.4	73.2	77.5	79.2	86.4	86.0	90.2	89.0
	일용	17.3	15.1	15.1	19.6	16.6	10.3	12.2	8.1	8.3
가정 내 근로	상용	4.4	12.1	2.2	1.0	3.4	0.0	5.9	4.6	7.1
	임시	29.9	17.0	31.5	40.1	23.3	16.8	26.5	10.0	15.9
	일용	65.7	70.9	66.3	59.0	73.3	83.2	67.6	85.4	77.1
시간제 근로	상용	1.0	1.8	1.6	1.5	1.5	1.8	3.6	5.0	7.9
	임시	42.2	42.3	41.3	46.9	48.4	47.0	52.6	58.2	57.9
	일용	56.8	55.9	57.1	51.6	50.1	51.2	43.8	36.7	34.2

주 : 각 고용형태에서의 임금근로자 중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IV.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시간, 근속기간

1. 임금

- 비정규직의 월평균 상대임금은,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할 때 2002년 67.1에서 2011년 56.4로 떨어져 정규직과의 격차가 증가함(표 IV-1 참조).
 -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2002년 67.1에서 카드사태가 있었던 2003년 61.3으로 떨어졌고, 내수침체가 있었던 2008년 다시 60.9로 하락한 후 국제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54.6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아 경기변동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됨. 2010년과 2011년은 상대임금격차가 줄고 있음.
- 2011년 기준으로 세부형태별로 보면 반복갱신(92.2)>특수형태근로(75.0)>파견(63.8)>기간제(61.3)>용역(51.3)>기대불가(50.1)>일일근로(44.2)>시간제 근로(25.3)>가정 내 근로(21.8)의 순으로 월평균 상대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간제 상대임금은 2002년 72.5가 정점이었고, 2010년 59.3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 이후 하락하고 있었으나 2011년에는 61.3으로 약간 상승함
 - 반복갱신 집단은 2002년을 제외하면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크지 않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계산됨.
 - 파견직은 2002년 78.9가 정점이었고, 2010년 61.5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2008년 이후 하락 중에 있었음. 2011년에는 63.8로 약간 증가함. 용역직도 2002년 59.2가 정점이었고, 2006년 48.9가 가장 낮았는데, 2007년 이후로는 50~51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특수형태근로도 2002년 82.3가 정점이었고, 2006년 69.3으로 가장

- 낮았음.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모두 2002년이 정점이었고, 가정 내 근로는 2010년이 가장 낮으며, 일일근로는 2009년이 가장 낮음.
- 시간제 근로는 비교적 꾸준히 상대임금이 하락해온 것으로 보임.

<표 IV-1> 고용형태별 월평균 상대임금 추이(8월 기준, 정규직=1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정규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67.1	61.3	65.0	62.7	62.8	63.5	60.9	54.6	54.8	56.4
한시적 근로	71.3	65.1	69.5	67.2	68.8	71.7	68.5	59.1	61.0	62.9
기간제	72.5	64.5	67.0	68.2	67.7	70.6	70.0	59.6	59.3	61.3
반복갱신	79.9	88.1	96.2	91.7	93.0	97.0	87.1	87.7	98.6	92.2
기대불가	54.3	53.4	51.9	50.1	49.8	47.0	49.5	47.2	46.2	50.1
비전형 근로	67.0	58.2	60.3	58.5	54.8	55.4	56.3	54.1	54.4	55.3
파견	78.9	65.8	71.8	71.3	66.1	66.8	69.3	64.3	61.5	63.8
용역	59.2	51.9	52.1	51.4	48.9	51.0	50.9	50.5	51.2	51.3
특수형태근로	82.3	75.8	78.5	77.1	69.3	70.8	73.0	69.5	71.0	75.0
가정 내 근로	36.4	24.6	31.8	30.7	31.3	28.3	22.9	27.3	19.0	21.8
일일근로	54.2	48.0	47.2	46.6	45.7	44.4	46.2	43.3	45.3	44.2
시간제 근로	34.3	29.8	30.4	28.3	28.9	27.9	27.0	24.3	24.6	25.3

주: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고용형태별 상대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 수준을 보면, 2010년 대비 2011년은 65.3으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2008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표 참조).
 -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이 2010년에 비해 개선된 고용형태는 기간제, 파견, 특수형태, 가정내 근로, 시간제 근로임.
 - 반면, 2010년 정규직의 임금 수준보다 높았던 한시적 근로자 중 반복갱신자는 2011년 93.7%로 하락함.
 - 2011년 용역, 일일근로의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 수준은 2010년 대비 감소함.

<표 IV-2> 고용형태별 상대 시간당 임금수준 추이(8월 기준, 정규직=1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정규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80.5	71.6	73.5	70.5	71.0	70.9	68.0	61.5	62.5	65.3
한시적 근로	83.0	70.4	75.9	72.4	74.3	76.1	72.7	64.1	66.2	69.3
기간제	86.9	70.7	75.6	74.5	74.6	76.3	75.1	65.5	65.8	69.0
반복갱신	82.1	88.4	96.3	89.1	94.0	98.1	88.4	87.2	100.8	93.7
기대불가	59.3	55.8	54.7	54.1	51.3	48.0	51.6	48.7	46.4	52.4
비전형 근로	72.6	66.3	66.0	63.2	60.1	60.1	59.4	57.0	57.4	58.5
파견	78.7	68.0	78.0	76.1	66.3	70.8	71.3	69.7	64.5	66.5
용역	56.5	49.4	50.0	48.4	46.1	48.4	49.1	47.9	50.3	49.8
특수형태근로	89.5	82.9	86.1	83.2	81.4	79.9	79.7	75.4	77.1	82.4
가정 내 근로	50.2	36.4	43.1	47.8	42.9	34.9	36.4	37.1	31.3	34.9
일일근로	62.5	63.2	55.2	53.7	51.5	52.0	51.2	47.6	49.0	47.4
시간제 근로	101.1	85.1	80.2	76.7	73.1	66.6	64.7	56.2	55.5	59.3

주: 1) 시간당임금=월평균임금/(평소1주당근로시간*365/84);

2)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고용형태별 상대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근로자 개인 특성과 근로시간을 통제할 경우 상대임금 추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표 IV-3>에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함.
 - 로그 임금을 종속변수로, 연령, 학력(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성별, 혼인상태(미혼, 기혼, 사별, 이혼), 부가설문에 있는 평소 주당근로시간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함.
- 개인 속성을 통제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추이는 변하지 않아 여전히 2002년에 정규직과의 격차가 가장 작고(정규직보다 26.7% 낮음) 2003년 카드사태 여파로 확대(29.2% 낮음)되었다가 그 이후 다시 감소하였는데,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가장 큰 격차를 기록함(31.9% 낮음).
 - 2011년 기준 세부 고용형태별 상대임금 서열 및 추이도 인적속성을 통제하더라도 변화하지 않음.

<표 IV-3> 고용형태별 평균임금 격차 추이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비정규직	-26.65	-29.24	-27.14	-28.30	-29.04	-27.79	-27.50	-31.94	-31.93	-30.49
한시적 근로	-25.83	-27.89	-24.77	-26.12	-26.33	-23.81	-23.73	-29.52	-29.45	-27.69
기간제	-27.29	-29.85	-28.23	-27.46	-28.37	-25.98	-24.25	-29.96	-31.44	-29.64
반복갱신	-16.93	-11.67	- 3.66	- 3.39	- 8.56	- 5.27	-12.12	-10.33	- 4.91	-6.99
기대불가	-32.63	-29.94	-33.76	-33.81	-35.79	-37.84	-34.20	-37.42	-40.14	-37.56
비전형 근로	-28.01	-34.52	-32.99	-33.41	-36.49	-35.18	-31.81	-35.03	-34.66	-34.33
파견	-7.86	-17.14	-18.60	-14.21	-23.16	-21.51	-20.38	-27.18	-26.26	-27.82
용역	-30.34	-33.78	-33.27	-31.78	-34.36	-32.52	-32.08	-31.63	-31.68	-32.22
특수형태근로	-15.43	-21.17	-19.73	-21.44	-30.24	-28.30	-20.54	-27.47	-24.85	-24.14
가정 내 근로	-63.86	-72.99	-67.36	-66.94	-64.88	-73.38	-73.28	-70.69	-78.94	-77.36
일일근로	-39.92	-45.02	-47.59	-47.08	-48.14	-47.82	-44.09	-48.70	-46.82	-47.68
시간제 근로	-63.91	-66.01	-66.80	-69.11	-69.08	-67.30	-67.30	-69.62	-69.22	-67.93

주: 임금을 대수변형 후 추정하였으므로, 정확한 % 계산을 위해 $100 \times (\exp(\text{회귀계수}) - 1)$ 를 취한 값임. 반복갱신의 2005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임금격차 회귀계수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본문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인적속성을 통제하지 않을 때보다 통제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2. 근로시간

- 다음으로 근로시간을 보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분석됨. 세부 고용형태별로 보면, 용역직의 평균 근로시간이 정규직보다 길뿐, 나머지 고용형태는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정규직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남(표 IV-4 참조).
 - 파견직은 2002년과 2005년에는 정규직보다 근로시간이 길었으나 나머지 해에는 짧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정의상 근로시간이 짧은 수밖에 없는 시간제를 제외할 경우 가정 내 근로의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음.

<표 IV-4>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임금근로자	49.3	48.5	47.8	47.5	46.6	45.9	45.1	43.9	43.4	42.7
정규직	51.0	50.2	49.7	49.2	48.5	47.9	46.9	45.9	45.6	45.0
비정규직	44.9	45.0	44.7	44.5	43.1	42.5	41.7	40.1	39.0	38.3
한시적 근로	46.5	46.8	46.4	46.5	45.2	44.9	44.3	42.3	41.5	40.6
기간제	45.7	46.1	45.1	45.6	44.2	44.1	43.8	41.5	40.7	39.8
반복갱신	49.0	49.3	49.6	50.9	47.8	47.1	45.2	45.3	43.2	43.5
기대불가	48.8	49.3	49.1	48.3	48.2	46.6	45.8	45.3	44.4	43.8
비전형 근로	47.6	46.5	45.8	45.9	44.6	44.1	44.1	42.7	42.6	41.9
파견	51.2	49.2	48.2	49.4	48.1	45.9	44.3	41.6	43.6	42.6
용역	54.6	54.4	53.7	53.1	53.1	51.7	50.4	49.5	47.4	46.7
특수형태근로	47.4	45.9	45.4	45.1	41.6	42.0	42.1	41.3	41.1	39.8
가정 내 근로	40.4	40.8	38.0	38.7	38.5	38.0	32.2	36.7	35.2	31.7
일일근로	45.8	43.9	42.8	43.0	42.0	40.9	41.6	39.9	40.7	40.4
시간제 근로	21.6	23.0	22.6	22.2	21.5	21.7	21.5	21.3	21.0	20.7

주 : 평균 근로시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3. 근속기간

○ 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2004년 69.8개월에서 2011년 79.2개월로 증가해 대체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계산되지만, 비정규직의 근속기간은 24개월 안팎에서 변동하고 있음(표 IV-5 참조).

- 2011년 8월 현재 반복갱신 > 특수형태근로 > 파견 > 용역 > 기간제 > 시간제 근로 > 가정 내 근로 > 일일근로의 순으로 근속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일일근로는 특성상 3개월에 못 미치는 근속을 가짐

<표 IV-5> 고용형태별 평균 근속기간 추이

(단위 : 개월)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임금근로자	52.9	54.3	54.1	55.1	57.1	58.6	59.4	61.2
정규직	69.8	71.8	70.1	71.3	73.9	78.6	77.3	79.2
비정규직	24.1	23.9	25.1	26.3	24.2	21.2	23.6	26.5
한시적 근로	25.9	25.8	28.4	31.5	28.9	23.2	26.9	30.7
기간제	22.6	25.0	25.0	29.2	28.1	23.2	25.6	28.7
반복갱신	50.5	56.4	61.4	57.2	52.5	46.7	59.7	62.1
기대불가	14.6	13.6	13.9	13.5	16.1	15.6	12.8	18.0
비전형 근로	21.9	21.6	20.0	20.3	20.8	20.7	23.3	24.3
파견	28.2	30.0	25.4	27.7	30.0	26.0	30.8	35.9
용역	24.4	27.1	25.6	27.9	26.0	27.0	31.5	30.6
특수형태근로	39.1	41.1	36.0	37.7	40.7	41.7	46.0	51.2
가정 내 근로	21.7	16.4	16.2	19.8	14.1	18.6	16.4	15.8
일일근로	2.1	2.3	2.8	2.3	2.1	1.7	1.4	1.7
시간제 근로	11.5	10.7	12.3	11.4	11.8	12.0	13.4	15.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근속기간 구간별로 분포를 보면, 정규직은 120개월을 초과해 근속한 사람이 24.6%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비정규직은 5.1%이고, 6개월 이하 근속한 사람은 정규직에서 17.7%이지만 비정규직에서는 48.4%인 것으로 나타남(표 IV-6 참조).

<표 IV-6> 고용형태별 근속기간 분포(2011년 8월 기준)

(단위 : %)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24개월 초과 60개월 이하	60개월 초과 120개월 이하	120개월 초과	전 체
임금근로자	28.3	8.8	13.1	18.3	13.6	18.0	100.0
정규직	17.7	8.3	12.8	20.2	16.3	24.6	100.0
비정규직	48.4	9.8	13.7	14.6	8.3	5.1	100.0
한시적 근로	39.6	10.9	16.3	17.8	9.8	5.7	100.0
기간제	40.6	10.8	15.9	18.3	9.5	4.9	100.0
반복갱신	14.7	9.8	18.3	22.8	18.4	16.0	100.0
기대불가	52.8	12.4	17.1	10.6	4.6	2.6	100.0
비전형 근로	54.7	7.9	11.4	12.8	8.3	4.9	100.0
파견	35.3	10.6	16.7	17.3	13.6	6.6	100.0
용역	26.8	14.9	20.3	22.9	11.0	4.1	100.0
특수형태근로	21.0	10.9	16.5	20.7	17.8	13.1	100.0
가정 내 근로	54.8	12.9	18.3	9.2	1.3	3.5	100.0
일일근로	97.7	0.6	1.0	0.5	0.0	0.2	100.0
시간제 근로	61.7	10.0	11.7	10.1	3.9	2.5	100.0

V. 비정규직의 복지

1. 사회보험

-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지만, 비정규직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 2007년 이후 답보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임. 세부 고용형태 별로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음(표 V-1, V-2, V-3 참조).

<표 V-1>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률 추이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임금근로자	52.7	57.7	59.5	61.4	62.6	63.2	64.3	64.7	65.0	65.1
정규직	62.9	70.8	72.5	75.7	76.1	76.3	77.3	78.9	78.4	79.1
비정규직	25.7	30.5	37.5	36.6	38.2	40.0	39.0	38.2	38.1	38.2
한시적 근로										
기간제	31.3	39.1	47.8	47.5	51.4	57.2	56.4	56.5	58.6	58.2
반복갱신	32.1	39.9	48.3	52.5	51.7	59.3	62.6	62.6	63.8	62.1
기대불가	47.6	68.9	76.2	63.3	82.6	83.5	78.6	83.7	86.0	82.1
비전형 근로	8.0	13.4	13.8	16.2	16.6	13.5	14.2	14.7	14.2	15.8
파견	24.4	22.4	25.7	23.6	22.0	23.0	23.6	21.7	22.3	21.1
용역	56.1	55.9	63.6	62.8	71.3	74.0	73.7	74.7	68.8	68.7
특수형태근로	52.7	58.8	57.8	60.5	58.7	61.0	62.5	62.2	61.4	55.4
가정 내 근로	25.5	24.0	27.7	23.1	11.1	9.9	7.2	0.5	0.4	3.5
일일근로	13.2	6.0	18.9	1.8	2.6	1.9	2.5	12.6	9.9	12.0
시간제 근로	0.0	0.1	0.5	1.1	0.7	0.5	0.9	0.2	0.3	0.2
시간제 근로	2.0	2.1	2.4	2.1	3.2	3.3	6.4	7.4	9.3	11.0

주 :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을 구분할 수 있는 해의 경우 직장가입만 대상으로 함. 2008년부터 직장가입 구분이 가능함. 2007년까지는 가입/미가입으로만 구분되었으나 부가조사 지침서상으로는 2007년까지도 직장가입자만 가입했다고 응답하도록 가이드 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V-2>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추이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임금근로자	48.0	49.8	52.1	53.1	54.6	55.3	56.8	58.9	58.6	59.6
정규직	56.2	59.7	61.5	63.8	64.7	64.3	65.8	67.6	67.6	68.9
비정규직	26.2	29.2	36.1	34.5	36.3	39.2	39.2	42.7	40.4	41.6
한시적 근로	31.8	37.1	45.5	45.2	49.0	55.5	56.0	62.0	60.6	61.1
기간제	32.7	37.6	45.8	50.0	49.7	57.6	62.3	68.7	66.4	65.1
반복갱신	48.1	65.1	72.9	59.7	77.2	81.2	77.3	85.3	82.1	80.7
기대불가	7.8	14.5	14.0	15.1	15.5	12.7	14.4	18.0	17.0	21.5
비전형 근로	24.8	21.9	25.2	22.0	20.8	23.9	25.8	27.6	28.6	28.0
파견	57.8	56.2	64.0	62.4	69.8	76.0	74.8	78.7	73.5	74.0
용역	54.5	55.7	57.1	60.6	57.4	65.4	67.3	74.8	77.1	70.2
특수형태근로	25.7	22.6	25.5	18.3	8.6	8.7	7.8	2.5	2.1	4.7
가정 내 근로	12.1	6.0	19.0	1.8	1.7	1.9	2.5	11.5	11.4	13.9
일일근로	0.5	1.7	1.6	0.9	0.7	0.7	2.7	5.1	4.0	5.9
시간제 근로	3.1	3.0	3.6	2.2	3.2	3.7	6.3	9.1	10.6	13.4

주 : 2010, 2011년 통계는 공식발표 통계와 상이한데 이는 2010년부터 통계청이 고용보험 비가입대상인 공무원, 교사, 별정우체국 직원을 분모에서 제외하기 때문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한시적 근로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을 제외하면 2011년에는 전년보다 주춤함.
 - 비전형 근로자는 2004년 이후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 형태별로 보면 파견 및 용역근로자는 가입률이 상승하고 있고, 가정 내 근로는 추이가 안정적이지 않아 증감을 판단하기 어려움.
 -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가입률이 2005년 이후 급감하는 특이한 추이가 관찰되다가 2011년에는 상승함
 - 시간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는 여전히 한 것으로 보이나, 세부형태별로 보면 차이가 있음.

<표 V-3> 고용형태별 건강보험 가입률 추이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임금근로자	55.5	59.5	61.3	61.9	63.2	64.4	65.6	67.1	67.0	68.3
정규직	65.6	72.5	73.8	75.9	76.1	76.7	78.0	79.8	79.5	80.9
비정규직	28.8	32.6	40.1	37.7	40.0	42.5	41.5	43.4	42.1	44.1
한시적 근로	34.6	41.1	50.5	48.7	53.2	60.0	59.8	64.1	64.6	66.9
기간제	35.3	41.8	50.9	54.0	53.8	62.7	66.5	71.4	71.1	72.1
반복갱신	52.0	72.5	79.0	63.4	84.0	84.6	79.6	85.5	86.5	83.9
기대불가	10.5	15.6	17.4	16.6	16.8	15.8	17.2	17.4	17.4	21.5
비전형 근로	28.4	26.4	29.7	25.8	25.4	27.7	28.1	27.7	28.8	29.6
파견	57.1	59.0	67.0	63.9	71.1	75.4	75.5	77.2	73.9	76.6
용역	68.0	74.5	74.0	72.5	73.7	80.2	79.6	83.7	84.7	84.4
특수형태근로	28.0	26.4	29.7	22.7	10.7	9.4	6.6	1.3	0.7	4.3
가정 내 근로	14.9	6.3	20.5	0.7	1.7	1.9	1.4	13.4	8.9	12.0
일일근로	0.0	0.2	0.3	0.8	1.0	0.8	0.9	0.4	0.4	0.3
시간제 근로	2.7	2.7	3.7	2.3	3.8	4.0	6.1	8.8	10.6	13.0

주 : 직장가입과 지역 가입을 구분할 수 있는 해의 경우 직장가입만 대상으로 함. 2008년부터 직장가입 구분이 가능함. 2007년까지는 가입/미가입으로만 구분되었으나 부가조사 지척서상으로는 2007년까지도 직장가입자만 가입했다고 응답하도록 가이드 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한시적 근로는 기간제와 반복갱신 집단의 높은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로 인해 정규직과의 격차가 꾸준히 줄어들어 왔음. 2002년 정규직과의 국민연금 가입격차는 31.6%포인트(= 62.9% - 31.3%)였지만, 2011년 20.9%포인트로 감소.
- 비전형 근로의 경우 파견, 용역은 정규직과의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가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특수형태근로,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매우 큰 격차를 보임.

2.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의 복지제도와 상여금

- 다음으로 사회보험 외에 근로형태 부가조사에서 이용 가능한 근로복지 항목인 퇴직금, 상여금, 유급휴가, 시간외수당 수급에서의 고용형태 간 차이도 분석하였음.
 - 퇴직금은 2010년 12월 이전에는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체에만, 유급휴가와 시간외 수당은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체에만 적용됨.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권리는 아님.
- 비정규직 중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2002년 20.6%에서 2011년 38.4%로 증가함(표 V-4 참조).

<표 V-4> 근로형태별 퇴직금 수혜율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임금근로자	48.7	52.9	54.0	54.1	54.6	57.5	61.4	61.5	63.1	64.7
정규직	59.3	66.4	67.4	68.6	67.9	70.3	74.5	76.9	76.6	78.4
비정규직	20.6	24.8	31.3	28.8	30.3	34.8	35.6	32.7	35.9	38.4
한시적 근로	25.2	31.9	40.1	38.3	41.7	50.1	51.7	47.9	55.2	59.0
기간제	26.7	33.1	41.2	43.8	43.0	52.9	57.9	53.3	60.7	63.0
반복갱신	36.2	61.2	70.7	58.4	70.5	75.7	76.3	80.7	82.9	84.5
기대불가	3.4	4.2	1.1	2.0	3.1	3.9	8.1	8.3	9.3	14.4
비전형 근로	19.9	17.7	21.5	16.8	16.2	20.6	24.3	24.2	26.1	26.8
파견	55.0	50.7	56.8	54.1	54.5	65.5	69.0	65.6	68.4	73.3
용역	42.0	45.4	52.0	48.8	51.6	60.9	67.3	74.5	76.8	77.6
특수형태근로	20.3	18.5	20.3	11.7	1.7	3.8	6.6	0.7	0.5	1.6
가정 내 근로	10.4	5.2	17.4	1.3	1.3	0.6	2.5	11.1	5.5	12.0
일일근로	0.0	0.1	0.2	0.1	0.1	0.3	0.4	0.3	0.2	0.1
시간제 근로	1.6	1.8	2.0	1.8	1.6	1.9	3.7	5.5	6.7	9.5

주 : 고용형태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그렇지만 이는 정규직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수치임. 정규직은 2002년 비정규직보다 38.7%포인트 높은 59.3%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2011년에도 40.0%포인트 높은 78.4%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했음.
 - 세부형태별로 보면 사회보험 추이와 유사하게 한시적 근로 중 기간제, 반복갱신 및 비전형 근로 중 파견, 용역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과의 격차가 좁혀져 왔음.
 -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2005년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특이한 추이를 보임.
 - 한시적 근로 중 기대불가 집단과 시간제 근로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최근 들어 다소 증가.
-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정규직 응답자의 비중은 2002년 59.6%에서 2011년 80.4%로 20.8%포인트 상승하였으나, 비정규직 중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2002년 19.0%에서 2011년 35.5%로 16.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침(표 V-5 참조).
- 세부형태별로 보면 반복갱신 집단은 정규직과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파견직이 2002년 46%에서 2011년 62.1%로 상승하고 용역직이 같은 시기 35.7%에서 60.2%로 상승해 정규직과의 차이가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남.
 - 기간제도 23.4%에서 2011년 53.6%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정규직과는 26.8%포인트의 격차가 존재함.
 - 특수형태근로자는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줄어들어 왔으나 2011년에는 8.3%로 전년대비 3.9%포인트 증가함.
 - 시간제 근로 중 상여금 받을 수 있는 사람 비중도 상승하고는 있지만 2011년 기준 12.4%만이 받을 수 있어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V-5> 고용형태별 상여금 수혜율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임금근로자	48.5	51.3	51.6	52.1	53.3	55.9	56.6	61.0	64.7	65.0
정규직	59.6	65.5	65.8	67.4	67.5	69.8	71.2	77.7	79.3	80.4
비정규직	19.0	21.9	27.5	25.5	27.7	31.1	27.9	29.8	35.5	35.5
한시적 근로	22.4	28.1	35.2	34.2	38.4	44.8	41.1	42.4	52.3	51.8
기간제	23.4	28.8	35.0	38.9	38.5	46.0	45.3	46.8	56.1	53.6
반복갱신	33.8	58.2	66.5	54.3	69.2	72.4	66.7	74.8	81.3	77.6
기대불가	3.1	3.1	1.2	1.8	5.3	5.0	5.6	8.4	13.9	20.8
비전형 근로	18.6	14.9	17.8	13.4	12.6	15.6	14.9	20.0	24.4	23.7
파견	46.0	45.8	47.7	49.8	43.5	53.6	50.4	58.4	69.2	62.1
용역	35.7	34.2	38.9	33.6	37.3	41.7	40.0	55.8	64.1	60.2
특수형태근로	20.9	17.3	19.1	11.5	2.6	5.1	3.7	3.9	4.4	8.3
가정 내 근로	10.3	4.8	15.1	2.0	2.2	0.6	1.1	13.5	6.1	12.0
일일근로	0.1	0.2	0.0	0.1	0.5	0.8	0.0	0.7	1.6	1.8
시간제 근로	1.7	1.3	1.8	1.8	2.0	3.1	3.6	8.8	11.2	12.4

주 : 고용형태별로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유급휴가의 수혜율은 2011년 8월에 전년동월대비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표 V-6 참조).
- 퇴직금이나 상여금과는 달리 정규직에서 2004년 이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비중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비정규직도 마찬가지로 보임(표 V-7 참조).
 - 2011년 기준 정규직의 55.0%가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했고, 비정규직은 22.0%만이 그렇게 응답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세부형태별로 보면 반복갱신은 2004년 이후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수형태근로에서는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감소해 왔음.

<표 V-6> 고용형태별 유급휴가 수혜율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임금근로자	45.8	45.0	43.7	49.8	52.8	57.0	58.7	56.0
정규직	58.2	58.0	55.0	61.7	65.4	70.6	71.3	69.2
비정규직	24.6	22.7	23.1	28.7	28.0	31.7	33.6	30.5
한시적 근로	31.8	30.7	31.9	41.9	41.5	47.8	52.7	47.7
기간제	31.4	34.5	32.8	44.7	46.1	54.7	58.9	52.2
반복갱신	57.6	49.5	51.7	61.2	65.6	67.3	75.8	63.0
기대불가	5.1	2.8	4.8	3.2	5.4	4.5	6.2	7.7
비전형 근로	14.3	11.0	10.8	14.2	15.5	17.6	21.7	17.9
파견	45.0	42.6	41.7	50.6	52.1	59.8	68.9	56.6
용역	27.5	27.6	31.5	39.1	41.5	51.1	59.2	48.2
특수형태근로	15.9	9.3	2.3	3.8	4.2	0.3	0.8	1.7
가정 내 근로	15.4	0.9	0.5	0.6	2.5	8.6	2.9	8.8
일일근로	0.1	0.1	0.0	0.1	0.0	0.2	0.3	0.3
시간제 근로	1.6	1.4	2.1	2.3	2.4	4.3	6.0	5.3

주: 1) 고용형태별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2) 2004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기간제, 용역 근로는 2007년 이후 증감 없이 일정한 추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간제 근로에서는 증가하고 있지만 2011년 기준으로 단지 6.4%만이 받을 수 있다고 응답했음.
- 결론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전체와 정규직 간의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복지 적용 격차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복갱신 집단은 정규직과 다를 것이 없으며, 기간제 근로 집단은 복지혜택 적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비전형 근로자 중에서는 파견, 용역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처럼 적용 및 가입 증가가 보이지만,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2005년 이후 큰 폭으로 상황이 악화되었고, 일일근로의 경우 거의 관련 규제가

<표 V-7> 고용형태별 시간외수당 수혜율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임금근로자	39.3	40.2	43.4	43.6	42.4	43.3	42.4	43.3	44.4	43.7
정규직	48.4	52.1	55.8	56.6	53.9	54.2	53.5	55.5	55.4	55.0
비정규직	15.0	15.4	22.2	21.1	21.5	23.8	20.7	20.4	22.5	22.0
한시적 근로	18.4	19.7	28.3	27.8	29.6	34.3	30.2	28.4	33.0	32.2
기간제	18.9	20.0	27.7	31.0	29.4	35.1	33.6	31.5	35.0	33.3
반복갱신	28.2	42.1	54.2	45.8	53.7	55.9	47.2	51.1	57.9	50.1
기대불가	4.2	2.8	2.7	3.7	5.4	3.9	3.6	4.2	7.0	10.9
비전형 근로	13.4	9.7	14.0	11.3	9.6	12.3	11.2	13.3	14.4	13.5
파견	31.2	38.9	35.6	38.1	37.0	46.5	44.9	45.6	45.5	36.8
용역	23.5	20.8	28.5	29.7	27.7	32.9	27.5	34.0	35.4	33.4
특수형태근로	15.1	9.8	14.5	7.7	1.0	1.8	1.6	0.1	0.0	0.4
가정 내 근로	9.1	3.5	12.4	0.9	0.9	0.0	1.1	5.5	2.2	6.8
일일근로	1.3	0.8	2.1	1.7	1.1	1.3	1.5	3.2	3.2	4.1
시간제 근로	3.1	2.2	1.8	2.5	2.4	2.3	2.2	4.9	5.7	6.4

주 : 고용형태별로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적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률, 적용률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수치가 워낙 낮아 열악한 상태의 큰 개선이 없는 것으로 보임.

3. 근로계약서와 직업훈련

- 고용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 비중을 보면, 기간을 명시할 가능성이 높은 기간제, 반복갱신, 파견, 용역에서 계약서 작성비율이 높았고, 이들 집단에서는 꾸준히 비중도 증가해 왔음(표 V-8 참조).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해야 함.
 - 정규직은 2011년 현재 비정규직보다 계약서 작성비율(각각 49.8%

<표 V-8> 고용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 비중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임금근로자	15.6	37.2	38.5	41.4	42.8	46.5	48.6	48.2	50.6
정규직	10.8	35.8	38.3	40.6	41.5	46.8	47.6	47.1	49.8
비정규직	25.7	39.5	38.8	42.8	45.1	46.1	50.3	50.3	52.0
한시적 근로	36.9	49.2	49.3	54.2	60.6	61.8	69.6	72.7	74.0
기간제	44.2	53.4	57.1	57.3	66.0	71.1	79.4	83.1	82.3
반복갱신	16.2	66.2	45.0	72.2	72.3	70.6	79.1	77.7	79.2
기대불가	3.0	10.4	15.1	15.9	16.8	15.8	13.8	15.9	19.1
비전형 근로	15.1	31.5	28.2	32.8	34.5	37.7	38.0	39.8	39.8
파견	33.4	59.4	57.0	69.2	69.8	76.1	80.4	85.0	78.7
용역	44.8	63.4	65.3	69.3	75.8	76.2	80.4	83.5	84.8
특수형태근로	13.8	39.8	32.4	35.4	35.5	40.5	37.5	38.9	39.5
가정 내 근로	3.5	13.8	9.2	6.9	5.5	8.8	11.8	9.3	20.3
일일근로	0.4	3.7	2.9	4.4	4.0	4.2	4.5	2.2	3.4
시간제 근로	6.8	14.3	14.5	16.5	17.2	19.3	23.7	26.7	31.7

주 : 2003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대 52.0%)이 낮음.

- 일일근로는 작성 비율이 매우 미미했고, 시간제 근로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2011년 31.7%만이 작성함.
- 직업훈련 경험은 2011년 정규직 39.5%, 비정규직 27.8%로 약 10% 포인트 가량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표 V-9 참조).
 - 세부형태별로 보면 기간제와 반복갱신은 2010년 기준 각각 35.9%, 33.7%로 정규직과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음.
 - 파견직도 정규직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높은 해도 있으며, 특수형태근로는 일관되게 전 시기에 걸쳐 정규직보다 직업훈련 경험이 많았음. 용역직은 약 10%포인트 정도 정규직보다 훈련경험이

<표 V-9> 고용형태별 직업훈련 경험 추이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임금근로자	28.0	24.9	26.8	30.8	31.2	35.5
정규직	31.2	28.4	30.4	34.7	34.6	39.5
비정규직	22.2	18.6	19.8	23.5	24.4	27.8
한시적 근로	23.7	21.3	21.2	25.2	28.4	32.5
기간제	23.8	22.5	23.8	28.0	32.3	35.9
반복갱신	37.9	29.8	25.6	30.4	32.1	33.7
기대불가	7.6	4.5	7.1	7.9	6.4	10.5
비전형 근로	21.9	18.1	20.6	24.8	24.4	27.8
파견	40.5	29.3	30.3	42.0	34.6	35.2
용역	15.2	17.6	14.9	22.7	24.5	30.5
특수형태근로	49.9	41.2	51.5	53.6	52.9	60.9
가정 내 근로	10.0	2.7	1.7	8.1	8.8	10.4
일일근로	2.4	2.1	2.5	4.7	4.0	5.2
시간제 근로	11.3	8.6	8.4	14.9	14.5	16.5

주 : 2006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났으며, 일일, 가정 내, 시간제 근로는 매우 낮은 수준의 직업훈련 경험을 보임.

VI 비정규직의 취업사유

- <표 VI-1>은 2011년 8월 자료를 이용해 고용형태별 취업사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규직은 근로조건에 만족하여 취업했다는 사람들의 비중이 34.2%, 안정적인 일자리여서 취업했다는 사람들의 비중이 36.0%인 반면, 비정규직은 각각 21.1%, 11.1%에 불과함.
 - 대신 비정규직 취업자는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취업했다는 사람들의 비중이 40.1%로 높게 나타남.
- 세부 형태별로 보면 반복갱신, 기간제 중 근로조건에 만족해서 취업했다는 응답이 각각 30.8%, 29.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일일근로(4.5%), 기대불가(12.1%), 가정 내 근로(12.9%), 시간제 근로(15.8%)에서는 낮게 나타남.
 - 안정적이어서 취업했다는 응답은 반복갱신에서만 37.7%로 정규직과 비슷했을 뿐 일일근로(0.4%), 시간제 근로(1.6%), 특수형태근로(3.3%), 가정 내 근로(3.6%)에서는 그런 응답이 전무하다시피 했고, 기간제(16.5%), 파견(16.5%), 용역(14.3%)도 정규직보다 20% 포인트 가까이 해당 응답이 낮았음.
 - 근무시간의 신축적 조절이 가능해서 선택했다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미미한 가운데 특수형태근로(6.1%), 시간제 근로(6.2%)에서만 5%를 넘는 응답이 나옴.
 - 시간제의 경우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거나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들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11.9%, 13.5%를 차지하였고,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기 위해 선택했다는 응답은 가정 내 근로에서도 높은 응답률을 보임.
 - 특수형태근로의 경우 노력한 만큼 수입이 생겨서 선택했다는 응답이 29.8%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표 VI-1> 고용형태별 취업사유 구성(2011년 8월)

(단위 : %)

	임금 근로 자	정규 직	비정 규직	한시적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시간 제근 로자	
				기간 제	반복 갱신	기대 불가	파견	용역	특수 형태	가정 내	일일 근로			
근로조건에 만족	29.7	34.2	21.1	27.3	29.3	30.8	12.1	14.3	25.7	25.5	14.5	12.9	4.5	15.8
안정적인 일자리	27.5	36.0	11.1	16.9	16.5	37.7	3.3	6.1	16.5	14.3	3.3	3.6	0.4	1.6
당장 수입이 필요	25.2	17.5	40.1	33.5	31.2	16.1	61.0	54.0	33.1	45.3	30.9	43.3	78.6	37.8
원하는 분야 일자리 없어	4.1	3.5	5.3	5.3	5.2	3.1	7.6	5.1	5.7	6.5	4.7	2.2	4.6	5.7
전공·경력 부합 일자리 없어	1.2	1.0	1.5	1.6	1.6	1.5	2.0	1.5	1.3	1.8	2.4	0.0	0.9	1.4
경력관리용	4.0	4.1	4.0	5.6	6.1	5.3	3.2	1.8	6.9	2.0	2.2	0.6	0.5	2.3
육아 가사 병행	2.0	0.7	4.5	3.4	3.7	1.3	2.8	3.7	3.4	1.1	6.1	25.4	2.9	11.9
학업, 직훈 등 병행	2.1	0.7	4.7	2.6	2.7	0.6	3.5	1.4	2.7	1.4	0.0	4.1	1.8	13.5
노력한 만큼 수입 생겨서	2.5	1.4	4.7	1.9	1.8	2.7	2.0	9.4	3.7	1.3	29.8	3.9	3.7	2.8
근무시간 신축조절 가능	1.2	0.5	2.5	1.3	1.3	0.6	1.4	2.4	0.5	0.8	6.1	1.8	1.7	6.2
기 타	0.4	0.4	0.6	0.7	0.7	0.1	1.1	0.3	0.5	0.0	0.1	2.3	0.6	1.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은 2011년 8월 현재 52.4%로 정규직 23.9%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표 VI-2 참조).

- 통계청은 “당장 수입이 필요”, “원하는 분야 일자리 없어”, “전공·경력 부합하는 일자리 없어” 취업했다는 응답자와 “경력관리용”, “육아 가사병행”, “학업, 직훈 등 병행”, “노력한 만큼 수입 생겨서”, “근무시간 신축조절 가능”, “기타”의 이유로 취업한 응답자 중 비자발적으로 취업했다는 사람들을 합쳐 비자발적 취업자로 정의함.

- 비정규직의 비자발적 취업 비중은 2008년부터 절반을 넘음.

○ 세부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대불가, 용역,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시간제 근로에서 꾸준히 50%를 넘는 사람들이 비자발적으로 취업함.

<표 VI-2>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 추이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임금근로자	31.7	30.1	38.4	35.0	34.6	33.7
정규직	22.4	21.0	27.4	23.0	24.7	23.9
비정규직	48.5	46.2	59.8	57.3	54.5	52.4
한시적 근로	42.7	38.6	50.5	51.2	47.2	44.9
기간제	43.2	36.9	44.4	46.8	44.1	42.5
반복갱신	15.7	17.5	29.2	25.6	20.5	24.7
기대불가	68.2	73.3	91.3	83.5	79.7	75.5
비전형 근로	62.9	59.9	73.1	67.1	63.9	64.6
파견	38.7	29.0	42.6	35.1	36.6	43.4
용역	49.2	45.3	51.7	55.6	56.4	54.8
특수형태근로	45.5	39.9	72.4	56.2	45.5	45.0
가정 내 근로	59.4	53.6	77.2	54.2	56.4	54.9
일일근로	91.7	89.3	93.4	88.7	88.0	87.9
시간제 근로	52.9	51.9	67.7	62.0	60.5	55.3

주 : 2006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반복갱신 집단은 정규직과 차이가 없으며, 기간제, 파견, 특수형태 근로에서 50%보다 낮은 비자발적 취업률을 보였음.
-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자발적 비정규직 정의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했을 경우만을 비자발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국제적 관행과는 다름.
 - 유럽연합(EU) 통계청은 “왜 비정규직을 선택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그에 대한 선택지로 “도제 훈련 등 직업훈련을 위한 계약이어서”,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정규직을 원하지 않아서”, “수습기간이어서”라는 네 개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원국이에 따라 조사하고 있음.

-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설문 문항이 이와 유사하므로 이 기준에 따라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중을 계산해보면, 기간제와 파견은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제는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음(표 VI-3 참조).
 - 시간제의 높은 자발적 취업 비중은 국제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임.
 - 시간제를 제외한 기간제, 파견, 용역 등 비정규직의 비자발적 취업 비중은 나라마다 편차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자발적 비중이 높은 나라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이 통계를 통해 추측할 수 있음.
 - 다만, 한국노동패널조사는 해당 문항에 대해 15개의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어 유럽연합 설문지와 동일하게 조사하면 비자발적 취업 비중은 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표 VI-3> 국제 관행과 유사한 측정수단을 이용한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
(단위: %)

	기간제	파견	용역	특수형태	시간제
비자발적 취업 비중	51.2	51.3	61.7	24.3	20.4

주: 한국노동패널조사 11차년도(2008년) 조사자료 기준.

Ⅶ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

- <표 VII-1>의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면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의 조직률이 5배가량 높음을 알 수 있음.
 - 한시적 근로 중 반복갱신 집단의 조직률이 가장 높으며,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시간제 근로, 한시적 근로 중 기대불가 집단은 2010년 기준으로 조직률이 1%도 넘지 않아 극히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비정규직의 조직률은 2004년이 가장 높은 5.2%였고 2011년은 2.6%로 하락하여, 2009년 17.3%로 조직률이 가장 높고 2010년 15.2%로 하락한 정규직과는 다른 추이를 보임.

<표 VII-1>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임금근로자	11.4	12.4	11.8	11.3	12.1	12.7	12.2	11.4	10.9
정규직	15.3	16.7	15.9	15.1	16.0	17.0	17.3	15.7	15.2
비정규직	3.4	5.2	4.6	4.3	5.1	4.4	2.5	2.8	2.6
한시적 근로	4.0	5.9	5.8	5.9	7.3	6.4	3.5	4.1	3.9
기간제	3.9	4.9	6.0	5.0	6.8	6.9	3.9	3.8	3.4
반복갱신	10.5	14.9	13.4	15.4	14.5	11.0	6.8	12.4	11.6
기대불가	0.4	0.8	0.7	1.6	1.3	1.2	0.3	0.5	0.7
비전형 근로	2.6	4.2	2.8	1.9	2.3	2.4	1.5	1.8	1.4
파견	6.1	5.2	9.3	6.1	5.6	7.5	3.2	4.0	4.7
용역	1.1	3.7	5.3	5.3	6.0	4.5	3.7	5.1	3.9
특수형태근로	5.5	8.1	3.7	0.9	1.6	2.0	0.6	0.5	0.1
가정 내 근로	0.9	4.4	1.2	0.2	0.0	0.0	1.5	0.0	0.0
일일근로	0.5	0.4	0.0	0.1	0.0	0.5	0.3	0.1	0.0
시간제	0.3	0.5	0.2	0.4	0.3	0.3	0.4	0.2	0.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조직률이 2004년에는 반복갱신 다음으로 높은 8.1%였으나 2011년 0.1%로 떨어져 극적인 조직률 하락을 경험함.
-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비중을 보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노조 사업체 근무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나(2011년 기준 정규직 28.6%, 비정규직 15.1%), 기간제나 반복갱신의 경우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음(표 VII-2 참조).
- 노동조합 접근성이 낮아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이 낮을 수 있으므로 노조가 있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중을 분석했음.
- 비전형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에 근무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으며, 특히 일일근로와 가정 내 근로에서 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VII-2> 고용형태별 유노조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임금근로자	22.1	23.6	23.2	23.0	24.8	25.8	26.3	24.7	24.0
정규직	26.9	28.4	28.3	27.8	29.3	30.7	30.7	28.9	28.6
비정규직	12.1	15.3	14.6	14.3	16.7	16.4	18.3	16.2	15.1
한시적 근로	14.7	18.2	17.8	18.3	22.8	23.0	26.1	24.2	22.5
기간제	15.4	18.5	19.5	18.1	24.1	26.2	30.1	27.3	24.7
반복갱신	22.5	28.7	24.6	30.9	29.1	24.0	23.1	25.8	25.4
기대불가	4.7	5.5	6.3	6.0	7.5	8.1	5.5	7.3	6.7
비전형 근로	8.6	11.3	10.2	7.3	8.8	8.1	7.6	7.4	6.4
파견	18.2	17.9	23.9	16.0	18.7	19.4	17.8	18.9	17.3
용역	7.6	11.7	14.3	10.1	15.0	11.3	9.8	13.1	9.8
특수형태근로	16.0	18.4	16.3	10.7	11.2	9.6	10.3	6.8	8.3
가정 내 근로	2.0	10.1	3.6	2.8	0.6	2.4	6.2	1.6	1.7
일일근로	2.2	3.1	2.0	1.9	2.1	3.2	2.5	1.7	1.1
시간제 근로	5.2	6.5	6.2	6.1	8.1	11.6	12.8	12.6	11.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의 임금근로자 중 노조 가입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비중을 보면, 2011년 기준 정규직은 80.0%가 가입자격이 있었으나 비정규직은 31.7%만이 가입자격이 있어 비정규직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음(표 VII-3 참조).
- 반복갱신 집단은 정규직과 거의 차이가 없는 특징이 있으며, 용역 직도 53.2%가 가입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간제 근로자는 현격히 비중이 낮음.

<표 VII-3> 고용형태별 유노조사업체 중 노조 가입자격이 있는 비중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임금근로자	74.9	73.3	71.8	71.3	71.5	70.5	66.4	68.1	69.6
정규직	81.6	80.5	79.2	78.2	79.0	78.6	79.7	78.5	80.0
비정규직	43.9	50.8	47.0	47.2	47.8	40.8	24.6	31.0	31.7
한시적 근로	43.1	49.9	49.2	51.0	50.9	43.1	24.1	30.4	32.6
기간제	41.5	42.7	47.2	46.9	46.3	41.2	23.3	26.5	27.4
반복갱신	62.7	73.8	76.7	68.9	73.6	66.0	45.1	66.8	76.3
기대불가	13.5	28.0	22.0	29.4	26.3	24.0	17.2	24.4	19.1
비전형 근로	51.0	54.7	37.7	37.8	39.3	40.5	33.6	40.6	33.1
파견	64.3	52.8	42.5	54.7	53.6	53.0	36.7	35.9	48.0
용역	38.2	63.5	58.9	71.0	57.5	54.3	52.2	57.7	53.2
특수형태근로	55.1	56.9	29.8	14.1	20.7	30.8	15.8	21.0	5.0
시간제 근로	16.6	13.5	8.1	10.2	8.8	8.4	10.2	7.4	6.1

주: 일일근로와 가정 내 근로는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는 관계로 집계에서 제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표 VII-4>에서 노조 가입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 조합원 비중 추이를 보면 가입자격이 있을 경우 비정규직도 절반 이상이 노조에 가입함을 알 수 있음.
- 특수형태근로의 경우 가입자격이 있을 경우 2004년 77%가 가입했지만 2010년 30.9%만이 가입해 다른 고용형태와는 다른 추이를

보임.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가입자격이 있어도 매우 낮은 비율의 근로자만이 노조에 가입하는 특징이 있음

<표 VII-4> 고용형태별 노조 가입자격 있는 사람 중 조합원 비중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임금근로자	69.0	71.9	70.5	68.9	68.0	69.9	69.5	67.9	65.3
정규직	69.7	73.0	71.1	69.8	68.9	70.5	70.8	69.1	66.5
비정규직	63.0	66.7	67.2	63.8	63.7	65.7	56.0	56.7	54.5
한시적 근로	63.4	65.2	65.9	63.2	63.2	64.6	56.1	56.4	53.0
기간제	60.9	62.3	65.3	58.4	61.2	63.5	55.9	53.3	50.4
반복갱신	74.6	70.5	70.8	72.3	67.7	69.7	65.0	72.1	60.0
기대불가	58.8	54.5	50.9	89.3	67.9	62.4	31.3	26.2	57.8
비전형 근로	59.0	67.8	73.0	70.1	66.5	72.7	57.9	60.0	66.8
파견	52.4	54.7	92.2	70.3	55.6	72.9	48.3	59.1	56.6
용역	37.5	49.3	62.6	74.5	69.3	72.9	72.9	67.6	74.4
특수형태근로	62.5	77.0	76.3	60.2	68.5	67.6	35.0	32.1	30.9
시간제 근로	30.4	61.5	38.6	58.0	35.2	34.6	32.4	25.9	37.4

주 : 일일근로와 가정 내 근로는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는 관계로 집계에서 제외함. 기대불가의 경우 수치가 얼마 되지 않아 안정적인 결과를 산출하지 못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부 표

(각 연도 8월 기준)

※ 9차 표준산업분류와 6차 표준직업분류가 2004년 이후부터 제공
되어 2002~03년은 제외함.
2002년은 직장시작시기 변수가 없어 근속 범주를 제외함.

<부표 1> 임금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천명,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성	전 체	14,030	14,149	14,584	14,968	15,351	15,882	16,103	16,479	17,048	17,510	
	남 성	8,258	8,283	8,489	8,682	8,909	9,235	9,366	9,515	9,783	10,034	
연령	여 성	5,772	5,866	6,096	6,286	6,442	6,647	6,737	6,964	7,265	7,476	
	15~29세	4,262	4,098	4,098	4,010	3,891	3,892	3,756	3,663	3,627	3,655	
	30~39세	4,297	4,320	4,446	4,516	4,655	4,637	4,733	4,694	4,757	4,789	
	40~49세	3,254	3,393	3,591	3,759	3,888	4,100	4,216	4,354	4,540	4,647	
	50~59세	1,527	1,647	1,722	1,869	2,032	2,252	2,388	2,562	2,852	3,058	
학력	60세 이상	691	689	756	814	885	1,002	1,011	1,205	1,272	1,360	
	중졸 이하	3,005	2,756	2,716	2,676	2,677	2,666	2,592	2,639	2,668	2,665	
	고졸 이하	6,414	6,263	6,401	6,534	6,582	6,669	6,602	6,603	6,807	6,824	
	전문대졸	1,579	1,611	1,748	1,864	1,968	2,150	2,248	2,335	2,441	2,614	
	대졸 이상	3,031	3,518	3,719	3,894	4,125	4,407	4,702	4,902	5,131	5,408	
산업	농어업			143	146	125	146	143	162	170	174	
	광업			11	14	13	17	22	20	19	11	
	제조업			3,496	3,433	3,365	3,360	3,352	3,222	3,482	3,448	
	전기 등			69	68	74	77	89	95	77	70	
	하수 등			41	50	53	56	62	63	64	70	
	건설업			1,300	1,327	1,353	1,393	1,396	1,324	1,388	1,396	
	도소매			1,817	1,850	1,877	1,940	1,891	1,931	2,016	2,097	
	운수			622	636	663	677	666	674	694	722	
	숙박음식			1,063	1,116	1,100	1,175	1,145	1,102	1,133	1,095	
	출판 등			540	566	589	613	566	609	600	658	
	금융보험			686	690	734	744	774	715	780	826	
	부동산임대			264	314	293	298	287	302	327	308	
	전문과학			484	509	554	596	646	721	734	851	
서비스업			658	720	796	936	927	912	1,023	1,089		

산업	공공행정	758	780	815	800	856	1,178	964	986
	교 육	1,209	1,255	1,344	1,366	1,420	1,468	1,414	1,350
	보건사회복지	549	581	631	678	776	943	1,123	1,237
	예술·여가	173	221	240	222	277	231	229	249
	협회, 개인 서비스	571	543	582	611	652	656	658	714
	가구내 등	105	122	130	160	140	138	139	149
	국 제	24	26	19	18	17	13	14	8
	관리자	257	287	292	360	333	349	388	379
	전문가	2,684	2,776	3,071	3,309	3,507	3,556	3,689	3,860
	사무직	3,103	3,167	3,150	3,184	3,337	3,373	3,549	3,768
직업	서비스	1,352	1,429	1,425	1,429	1,540	1,506	1,548	1,575
	판 매	1,341	1,353	1,378	1,427	1,396	1,448	1,475	1,456
	농림수련	55	58	49	67	50	58	67	62
	기능원 등	1,625	1,651	1,659	1,636	1,698	1,572	1,630	1,606
	기계조작 등	1,839	1,811	1,846	1,813	1,720	1,722	1,820	1,865
	단순노무직	2,318	2,437	2,480	2,658	2,564	2,895	2,882	2,938
	1~4인	2,809	2,974	3,084	3,172	3,139	3,058	3,196	3,355
	5~9인	2,447	2,484	2,575	2,698	2,791	2,740	2,905	2,977
	10~29인	3,150	3,186	3,267	3,531	3,593	3,715	3,859	3,972
	30~99인	2,876	2,941	3,025	3,112	3,134	3,309	3,485	3,473
규모	100~299인	1,489	1,484	1,560	1,535	1,594	1,656	1,675	1,769
	300인 이상	1,814	1,899	1,840	1,833	1,853	2,002	1,928	1,963
	상용직	7,700	7,926	8,243	8,763	9,107	9,472	10,151	10,710
	임시직	4,813	4,879	5,018	5,044	4,970	5,117	5,122	5,031
	일용직	2,071	2,164	2,090	2,075	2,027	1,890	1,775	1,769
	1년 미만	5,752	5,880	6,120	6,099	6,014	6,228	6,371	6,290
	1~2년 미만	2,224	2,041	2,115	2,320	2,193	2,143	2,185	2,388
	2~3년 미만	1,192	1,354	1,220	1,323	1,400	1,290	1,445	1,333
	3년 이상	5,417	5,693	5,896	6,139	6,497	6,817	7,046	7,499
	종사상 지위	상용직	6,851	7,236	7,236	8,763	9,107	9,472	10,151
임시직		4,806	4,872	5,018	5,044	4,970	5,117	5,122	5,031
일용직		2,372	2,041	2,090	2,075	2,027	1,890	1,775	1,769
근속 연수	1년 미만	5,752	5,880	6,120	6,099	6,014	6,228	6,371	6,290
	1~2년 미만	2,224	2,041	2,115	2,320	2,193	2,143	2,185	2,388
	2~3년 미만	1,192	1,354	1,220	1,323	1,400	1,290	1,445	1,333
연수	3년 이상	5,417	5,693	5,896	6,139	6,497	6,817	7,046	7,499

<부표 2> 정규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천명,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성	전 체	10,190	9,542	9,190	9,486	9,894	10,180	10,638	10,725	11,362	11,515		
	남 성	6,320	5,996	5,756	5,947	6,204	6,328	6,667	6,833	7,134	7,242		
연령	여 성	3,870	3,546	3,434	3,539	3,690	3,851	3,991	3,891	4,228	4,273		
	15~29세	3,242	2,797	2,654	2,605	2,606	2,590	2,519	2,416	2,410	2,412		
	30~39세	3,330	3,184	3,018	3,145	3,270	3,254	3,469	3,513	3,647	3,626		
	40~49세	2,346	2,337	2,297	2,395	2,563	2,703	2,882	2,946	3,188	3,230		
	50~59세	963	990	979	1,069	1,181	1,291	1,442	1,521	1,731	1,846		
학력	60세 이상	309	235	243	272	275	341	346	329	387	401		
	중졸 이하	1,749	1,344	1,206	1,157	1,190	1,154	1,137	1,030	1,140	1,112		
	고졸 이하	4,635	4,166	3,991	4,039	4,177	4,165	4,173	4,091	4,330	4,239		
	전문대졸	1,297	1,226	1,244	1,359	1,396	1,547	1,694	1,733	1,841	1,943		
	대졸 이상	2,509	2,805	2,749	2,932	3,132	3,314	3,654	3,871	4,051	4,221		
산업	농어업			35	32	28	47	46	53	50	54		
	광업			9	12	11	13	20	16	16	10		
	제조업			2,680	2,723	2,688	2,670	2,796	2,699	2,962	2,911		
	전기 등			53	55	63	68	81	86	69	61		
	허수 등			32	36	40	43	44	47	50	60		
	건설업			478	489	567	586	629	597	669	679		
	도소매			1,162	1,197	1,263	1,230	1,238	1,296	1,394	1,450		
	문 수			448	467	492	504	519	530	578	573		
	숙박음식			610	576	662	718	712	681	700	654		
	출판 등			371	414	430	450	412	478	475	522		
	금융보험			384	369	356	367	427	401	463	483		
	부동산임대			148	187	179	182	182	167	193	174		
전문과학			350	382	417	437	506	593	609	694			
서비스업			148	162	166	184	167	191	216	222			

<부표 3> 비정규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천명, %)

	규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성	전체	3,839	4,606	5,394	5,482	5,457	5,703	5,445	5,754	5,685	5,994
	남성	1,938	2,286	2,732	2,736	2,705	2,907	2,699	2,681	2,649	2,791
연령	여성	1,902	2,320	2,662	2,747	2,752	2,796	2,746	3,073	3,037	3,203
	15~29세	1,020	1,301	1,426	1,405	1,285	1,302	1,237	1,247	1,217	1,243
	30~39세	967	1,136	1,429	1,371	1,385	1,383	1,264	1,181	1,110	1,163
	40~49세	907	1,057	1,284	1,364	1,325	1,397	1,334	1,408	1,352	1,417
	50~59세	564	658	743	800	851	960	946	1,041	1,121	1,212
학력	60세 이상	381	455	512	543	611	661	664	876	885	959
	중졸 이하	1,256	1,412	1,510	1,519	1,487	1,511	1,415	1,609	1,529	1,553
	고졸 이하	1,779	2,096	2,410	2,496	2,405	2,495	2,429	2,513	2,477	2,585
	전문대졸	281	385	504	506	572	603	555	602	600	671
	대졸 이상	523	713	970	962	993	1,093	1,047	1,030	1,079	1,186
산업	농어업			108	114	97	99	97	109	120	121
	광업			2	2	2	3	2	3	3	1
	제조업			816	710	677	690	555	523	520	538
	전기 등			16	13	11	9	8	9	8	9
	하수 등			9	14	12	13	17	16	14	10
	건설업			822	838	786	807	767	727	719	717
	도소매			656	653	614	650	633	634	623	647
	운수			175	170	171	173	146	144	116	149
	숙박음식			452	540	438	457	433	421	434	441
	출판 등			170	152	159	163	154	130	125	136
	금융보험			302	321	379	378	346	314	317	343
	부동산임대			116	127	114	115	106	135	134	134
	진문과학			134	127	137	159	140	127	125	157
사업서비스			510	559	631	752	761	721	806	867	

<부표 4> 한시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천명, %)

	규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성	전체	2,063	3,013	3,597	3,614	3,626	3,546	3,288	3,507	3,281	3,442
	남성	1,150	1,582	1,916	1,864	1,914	1,922	1,701	1,683	1,576	1,644
연령	여성	913	1,431	1,681	1,750	1,712	1,625	1,587	1,824	1,704	1,798
	15~29세	635	955	1,068	1,057	989	939	864	875	805	798
	30~39세	479	722	943	902	945	924	813	722	672	734
	40~49세	460	646	803	842	800	776	718	738	690	729
	50~59세	295	410	476	483	521	517	507	573	562	603
학력	60세 이상	195	279	307	331	371	389	386	600	551	579
	중졸 이하	654	857	910	886	873	784	741	933	789	794
	고졸 이하	908	1,353	1,562	1,611	1,534	1,443	1,334	1,412	1,316	1,304
	전문대졸	165	278	381	385	442	472	425	436	400	480
	대졸 이상	337	526	744	733	778	848	788	726	776	864
산업	농어업			66	64	55	44	47	35	52	33
	광업			2	2	1	2	2	2	2	62
	제조업			626	578	555	548	434	389	393	268
	전기 등			14	13	11	9	6	9	7	47
	하수 등			7	9	12	13	15	14	10	92
	건설업			489	459	435	354	307	234	189	199
	도소매			390	389	383	357	321	291	259	247
	운수			106	116	125	119	107	105	73	87
	숙박음식			301	374	283	259	253	213	181	108
	출판 등			146	127	142	144	129	105	107	133
	금융보험			141	135	166	155	122	96	90	87
	부동산임대			81	96	83	80	72	92	85	122
	전문과학			108	106	120	138	127	116	111	132
시업서비스			313	315	375	456	451	505	559	554	

<부표 5> 기간제 근로자 추이(8월 기준)

		규모												(단위: 천명,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성	진 체	1,536	2,403	2,491	2,728	2,722	2,531	2,365	2,815	2,494	2,668			
	남 성	903	1,298	1,348	1,483	1,466	1,408	1,273	1,364	1,211	1,265			
연령	여 성	633	1,104	1,144	1,244	1,255	1,123	1,083	1,451	1,283	1,403			
	15~29세	491	802	791	873	781	731	663	739	647	647			
	30~39세	341	553	607	667	675	638	584	573	487	544			
	40~49세	326	489	525	577	575	503	476	532	468	527			
	50~59세	227	329	336	362	390	363	347	450	429	445			
학력	60세 이상	151	230	233	248	301	296	295	522	463	504			
	중졸 이하	483	671	635	611	653	564	505	727	610	631			
	고졸 이하	660	1,080	1,078	1,197	1,159	997	912	1,099	968	975			
	전문대졸	126	215	257	308	323	343	326	368	312	395			
	대졸 이상	277	436	521	611	588	627	621	621	605	667			
산업	농어업			57	54	50	37	34	25	39	19			
	광업			0	1	0	0	1	1	2	1			
	제조업			371	401	365	345	278	277	247	266			
	전기 등			9	10	10	6	5	9	6	6			
	하수 등			4	7	10	10	13	12	8	8			
	건설업			405	394	364	286	236	175	120	150			
	도소매			225	244	261	207	197	180	145	138			
	문 수			63	85	85	73	80	84	53	72			
	숙박음식			166	214	190	133	106	111	70	86			
	출판 등			111	107	110	117	105	79	84	95			
	금융보험			102	116	126	117	98	80	65	75			
	부동산임대			48	69	60	52	51	70	67	63			
	전문과학			81	91	95	101	98	104	77	101			
서비스업			246	288	310	375	387	450	505	532				

산업	공공행정	120	122	151	136	142	502	299	267
	교 육	249	285	269	260	266	295	311	333
	보건사회복지	96	113	99	120	137	239	282	323
	예술·여가	48	54	63	49	58	51	46	57
	협회, 개인 서비스	67	65	73	74	59	62	62	64
	가구내 등	21	24	30	29	13	9	5	9
	국 제	4	1	2	4	2	0	1	1
	관리자	31	34	36	41	32	32	32	30
	전문가	438	502	489	522	530	524	532	638
	사무직	433	489	489	483	444	508	454	472
직업	서비스	230	269	270	205	184	227	217	248
	판 매	166	171	182	159	147	156	123	111
	농림수렵	20	21	19	17	10	11	14	13
	기능원 등	357	360	350	260	226	201	175	190
	기계조작 등	181	197	186	186	174	199	162	189
	단순노무직	635	684	700	660	618	959	785	777
	1~4인	494	551	546	425	351	334	325	363
	5~9인	452	427	474	382	393	418	347	406
	10~29인	566	617	626	642	629	841	713	762
	30~99인	504	568	546	546	490	661	658	649
규모	100~299인	246	297	277	285	261	282	238	237
	300인 이상	230	268	253	251	241	279	214	251
	상용직	994	1,178	1,168	1,288	1,201	1,365	1,479	1,574
	임시직	685	725	750	751	765	1,196	856	925
	일용직	813	824	803	512	400	255	160	168
	1년 미만	1,454	1,537	1,540	1,291	1,180	1,620	1,339	1,338
	1~2년 미만	386	375	382	400	377	414	377	432
	2~3년 미만	193	246	212	208	209	216	228	237
	3년 이상	459	570	587	632	599	565	550	661

<부표 6> 계약 반복갱신에 의한 합시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천명, %)

	규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성	전체											
	남성	319	149	369	171	272	333	202	104	168	188	
연령	여성	249	99	211	131	194	222	172	66	137	151	
	15~29세	193	75	164	65	125	127	106	36	69	68	
	30~39세	158	68	204	95	155	203	120	53	92	119	
	40~49세	112	67	136	94	100	134	79	49	94	87	
	50~59세	63	22	53	36	57	61	48	21	44	49	
학력	60세 이상	43	16	22	13	28	30	21	11	7	16	
	중졸 이하	74	45	79	60	68	56	42	25	25	30	
	고졸 이하	141	102	238	135	161	211	147	57	105	115	
	전문대졸	20	38	88	33	80	96	61	32	49	56	
	대졸 이상	47	64	176	75	156	191	124	57	126	137	
산업	농어업			3	3	1	1	1	3	2	1	
	광업			1	1	0	1	0	0	0	0	
	제조업			163	79	104	133	84	31	66	61	
	전기 등			4	2	2	4	1	0	1	2	
	화학 등			3	2	1	2	1	1	1	1	
	건설업			34	14	27	34	20	10	21	15	
	도소매			78	44	53	83	48	16	30	40	
	문수			30	14	27	29	14	8	9	21	
	숙박음식			22	39	16	19	13	7	10	12	
	출판 등			32	12	25	25	17	18	17	15	
	금융보험			33	11	31	31	11	9	21	25	
	부동산임대			12	6	11	13	5	4	9	5	
	전문과학			19	7	16	31	24	7	26	28	
	사업서비스			42	10	41	48	35	23	23	28	

<부표 7>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천명, %)

	규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성	전체										
	남성	662	362	526	585	439	460	549	521	481	436
연령	여성	408	135	199	209	177	180	226	215	197	191
	15~29세	254	227	327	376	263	279	323	307	284	244
	30~39세	138	78	114	119	83	81	95	99	89	83
	40~49세	128	102	132	140	116	84	109	96	93	71
	50~59세	173	90	142	170	125	139	163	157	128	115
학력	60세 이상	138	59	86	85	74	93	112	102	90	108
	중졸 이하	86	34	52	70	42	63	69	67	81	58
	고졸 이하	98	141	196	215	152	163	193	181	154	133
	전문대졸	117	170	247	279	214	235	275	255	242	214
	대졸 이상	18	25	35	44	40	33	37	36	40	29
산업	14	26	47	47	34	29	43	49	45	60	
	농어업	7		7	6	5	6	8	12	13	
	광업	0		0	1	0	1	0	0	0	
	제조업	93		93	98	86	70	72	80	76	
	전기 등	1		1	0	0	0	0	0	0	
	화학 등	0		0	1	1	1	1	1	0	
	건설업	51		51	51	44	34	51	49	48	
	도소매	87		87	101	69	67	76	96	84	
	운수	13		13	17	13	18	12	14	11	
	숙박음식	113		113	121	78	107	134	95	102	
	출판 등	3		3	8	7	2	7	8	6	
	금융보험	5		5	8	8	7	12	7	4	
	부동산임대	22		22	21	12	15	16	18	9	
전문과학	8		8	8	8	6	5	6	7		
시업서비스	25		25	37	24	33	30	33	31		

<부표 8> 비진형 근로자 추이(8월 기준)

		규모												(단위: 천명,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성	전체	1,742	1,678	1,948	1,907	1,933	2,208	2,137	2,283	2,289	2,427				
	남성	848	827	970	967	918	1,141	1,119	1,156	1,215	1,257				
연령	여성	894	851	978	941	1,015	1,067	1,018	1,127	1,074	1,170				
	15~29세	315	296	337	283	223	267	238	239	217	218				
	30~39세	473	425	494	466	433	454	439	449	396	384				
	40~49세	440	437	516	534	558	633	604	672	625	660				
	50~59세	300	296	331	364	413	499	502	542	631	678				
학력	60세 이상	214	224	269	262	306	356	354	380	420	487				
	중졸 이하	638	641	698	692	724	809	732	789	800	847				
	고졸 이하	830	747	887	877	890	1,041	1,032	1,038	1,035	1,126				
	전문대졸	112	115	137	128	133	141	143	182	195	180				
	대졸 이상	162	174	227	211	187	218	231	274	258	274				
산업	농어업			44	47	42	54	48	70	64	86				
	광업			0	0	1	1	1	1	1	1				
	제조업			207	137	136	150	110	116	102	125				
	전기 등			3	1	0	1	2	0	0	1				
	화학 등			1	4	1	1	3	2	1	1				
	건설업			348	389	356	458	465	499	524	508				
	도소매			236	232	205	231	234	250	240	252				
	문수			77	53	46	53	38	37	35	43				
	숙박음식			89	98	84	98	61	92	74	92				
	유통 등			30	24	17	27	31	31	21	21				
	금융보험			180	199	224	233	233	227	230	240				
	부동산임대			33	29	33	31	30	48	55	48				
	전문과학			28	22	15	20	9	8	12	12				
사업서비스			433	458	531	647	670	634	692	746					

<부표 9> 파견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천명, %)

	규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성	전체	94	98	117	118	131	174	139	165	211	197
	남성	45	41	53	43	65	83	64	72	104	92
연령	여성	48	57	64	75	65	92	75	93	107	105
	15~29세	45	33	38	40	34	56	34	53	56	41
	30~39세	26	29	30	37	30	43	36	42	36	36
	40~49세	13	23	32	23	30	46	40	39	46	54
	50~59세	7	4	10	12	24	19	20	18	40	39
학력	60세 이상	2	9	7	6	12	11	9	13	33	27
	중졸 이하	12	17	23	19	31	30	22	28	47	39
	고졸 이하	55	57	57	59	67	92	70	68	99	102
	전문대졸	12	14	17	18	12	28	21	27	30	17
	대졸 이상	14	10	19	22	21	23	26	43	34	39
산업	농어업			0	0	1	0	0	0	0	0
	광업			0	0	0	0	0	0	0	0
	제조업			12	13	15	23	15	16	9	11
	전기 등			0	0	0	0	0	0	0	0
	화학 등			0	0	0	0	1	1	1	0
	건설업			10	4	13	16	11	6	8	6
	도소매			28	30	24	30	22	20	28	31
	민수			2	1	2	2	3	2	3	5
	숙박음식			4	7	1	8	5	11	8	8
	유통 등			8	12	5	7	14	17	12	16
	금융보험			2	1	2	1	2	0	0	1
	부동산임대			4	3	1	1	1	2	6	3
	전문과학			4	3	4	5	1	3	3	4
	서비스업			31	34	43	64	51	57	102	81

<부표 10> 영역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천명, %)

	규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332	346	413	431	498	593	641	622	608	672	
성											
남성	208	204	239	247	269	340	369	343	334	376	
여성	124	142	174	183	229	253	272	279	274	297	
연령											
15~29세	33	53	57	58	55	69	72	69	67	73	
30~39세	43	32	53	53	52	68	81	76	63	69	
40~49세	60	63	66	79	96	106	103	105	102	116	
50~59세	101	101	117	121	141	169	191	175	183	192	
60세 이상	95	97	120	119	154	180	195	197	195	223	
학력											
중졸 이하	176	182	215	221	258	284	284	276	256	273	
고졸 이하	137	130	159	168	205	247	282	259	258	302	
전문대졸	10	13	21	23	21	33	32	43	48	48	
대졸 이상	9	22	18	18	15	29	43	45	46	50	
종업											
농어업			0	0	1	0	1	0	0	0	
광업			0	0	0	0	0	1	0	0	
제조업			2	3	3	4	4	6	2	3	
전기 등			0	0	0	0	0	0	0	0	
화학 등			0	0	0	1	0	0	0	1	
건설업			13	8	4	9	14	20	10	7	
도소매			0	1	1	2	1	0	6	2	
단수			4	0	1	2	3	5	2	2	
숙박음식			3	2	5	4	6	10	4	4	
유통 등			1	0	0	1	1	0	1	1	
금융보험			0	0	0	0	0	0	0	0	
부동산임대			7	7	10	7	12	19	19	14	
전문과학			3	2	0	0	1	1	1	0	
사업서비스			374	403	471	557	592	554	552	631	

<부표 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추이(8월 기준)

(단위: 천명, %)

	규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772	600	711	633	617	635	595	637	590	614	
성											
남성	329	229	308	239	186	214	182	204	193	198	
여성	443	371	403	394	431	421	413	433	397	416	
연령											
15~29세	181	125	156	99	69	68	79	55	46	56	
30~39세	266	226	242	232	211	205	189	208	190	162	
40~49세	210	166	204	199	206	227	218	239	214	223	
50~59세	84	59	75	72	87	95	76	98	108	132	
60세 이상	31	24	34	31	43	41	32	38	32	40	
학력											
중졸 이하	150	101	105	95	107	92	55	85	71	70	
고졸 이하	428	300	368	319	303	345	331	315	289	313	
전문대졸	72	74	73	65	75	59	71	72	76	80	
대졸 이상	121	125	165	154	132	139	138	165	154	152	
종업											
농어업			3	3	1	1	0	4	0	0	
광업			0	0	0	0	0	0	0	0	
제조업			46	33	27	24	5	11	6	10	
전기 등			1	1	0	1	2	0	0	0	
화학 등			1	3	0	0	1	0	0	0	
건설업			29	14	14	12	1	4	2	2	
도소매			165	152	139	156	169	196	170	177	
민수			62	43	35	38	16	12	17	19	
숙박음식			27	20	14	9	2	7	3	3	
유통 등			17	7	7	8	10	9	3	3	
금융보험			177	197	221	231	230	225	228	237	
부동산임대			18	17	19	20	14	22	29	29	
전문과학			18	15	7	7	3	1	1	2	
사업서비스			15	15	10	14	20	11	12	8	

<부표 12> 가정 내 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천명, %)

		규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성	전체	235	166	171	141	175	125	65	99	70	75	
	남성	46	18	23	14	15	24	7	12	5	9	
연령	여성	190	148	147	127	160	100	58	86	65	66	
	15~29세	30	15	22	12	15	8	9	8	4	5	
	30~39세	75	55	59	42	40	38	21	25	18	30	
	40~49세	58	35	40	37	52	36	18	31	26	17	
	50~59세	34	26	21	28	36	25	9	20	8	12	
학력	60세 이상	38	36	29	21	32	18	9	16	14	11	
	중졸 이하	112	81	68	54	74	47	21	35	21	20	
	고졸 이하	94	72	78	69	78	53	32	51	36	40	
	전문대졸	8	6	14	5	11	8	5	4	5	6	
	대졸 이상	21	8	12	12	13	16	7	8	8	8	
산업	농어업			1	1	1	1	1	1	0	0	
	광업			0	0	0	0	0	0	0	0	
	제조업			96	67	73	83	47	42	50	56	
	전기 등			2	0	0	0	0	0	0	0	
	허수 등			0	0	0	0	0	0	0	0	
	건설업			1	2	1	4	0	1	1	1	
	도소매			16	16	18	9	6	10	3	7	
	문수			1	1	0	0	0	1	0	0	
	숙박음식			3	1	2	3	1	2	0	0	
	출판 등			4	2	3	10	5	2	4	0	
	금융보험			2	3	0	0	0	0	0	0	
	부동산임대			0	0	1	4	1	1	1	0	
	전문과학			2	1	0	1	2	2	2	2	
서비스업			2	1	4	1	0	1	5	0		

<부표 13> 일일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천명, %)

	규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412	589	666	718	667	845	818	883	870	962	
성											
남성	263	380	395	466	437	554	563	574	606	626	
여성	149	208	271	252	230	291	255	308	263	336	
연령											
15~29세	40	91	85	90	65	75	55	61	47	53	
30~39세	90	118	146	144	131	141	136	121	98	110	
40~49세	133	181	206	234	225	268	260	296	258	274	
50~59세	89	124	127	157	156	231	241	263	309	326	
60세 이상	59	75	102	94	90	130	126	141	159	199	
학력											
중졸 이하	242	314	338	352	328	427	397	424	430	474	
고졸 이하	154	245	291	327	303	375	381	397	380	421	
전문대졸	13	14	18	23	23	24	17	40	38	36	
대졸 이상	3	15	19	16	13	19	22	22	23	32	
종업											
농어업			40	45	39	53	46	70	64	86	
광업			0	0	1	1	1	1	1	0	
제조업			87	58	65	69	61	65	47	76	
전기 등			0	0	0	0	0	0	0	0	
기계 등			0	0	1	0	1	0	0	1	
하수 등			0	2	1	0	1	0	0	1	
건설업			312	367	335	433	450	484	514	498	
도소매			39	44	34	46	44	42	39	43	
운수			13	10	14	16	21	17	14	17	
숙박음식			57	71	66	76	48	62	58	77	
유통 등			1	3	2	3	4	2	1	1	
금융보험			1	0	1	1	1	1	2	2	
부동산임대			4	1	3	1	1	5	1	3	
전문과학			3	5	4	8	2	3	6	5	
시업서비스			42	45	48	66	67	41	43	58	

<부표 14> 시간제 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천명, %)

		규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성	전 체	807	929	1,072	1,044	1,135	1,201	1,229	1,426	1,620	1,702		
	남 성	227	240	278	309	345	359	372	369	427	470		
연령	여 성	579	689	794	736	790	843	857	1,058	1,194	1,232		
	15~29세	249	302	300	320	307	347	329	369	418	439		
	30~39세	214	239	266	238	267	236	237	243	264	256		
	40~49세	169	183	243	222	245	249	265	338	336	336		
	50~59세	92	104	133	132	140	172	178	197	241	282		
학력	60세 이상	83	100	130	133	176	198	220	279	361	389		
	중졸 이하	265	282	331	325	355	378	389	442	512	538		
	고졸 이하	389	454	514	504	523	571	596	683	734	782		
	전문대졸	39	58	57	59	76	77	56	81	104	113		
	대졸 이상	114	135	169	157	180	176	188	220	270	269		
산업	농어업			24	32	25	26	28	21	29	24		
	광업			0	0	0	1	0	0	1	0		
	제조업			108	93	85	85	85	99	94	77		
	전기 등			2	1	0	1	1	0	0	2		
	허수 등			1	1	1	1	0	0	3	0		
	건설업			95	80	93	82	72	82	85	84		
	도소매			178	162	178	194	200	237	261	274		
	문 수			16	18	21	22	20	20	22	17		
	숙박음식			177	195	183	209	195	226	254	258		
	출판 등			16	13	12	16	13	12	12	13		
	금융보험			18	14	23	14	12	11	12	21		
	부동산임대			20	20	20	22	21	18	23	30		
	전문과학			13	12	13	12	13	10	11	21		
서비스업			34	40	36	42	58	56	67	67			

산업	공공행정	63	56	86	94	93	131	152	141
	교 육	172	170	194	179	195	233	251	251
	보건사회복지	18	22	31	49	51	106	177	201
	예술·여가	20	34	32	37	47	42	42	58
	협회, 개인 서비스	50	37	54	53	72	64	63	87
	가구내 등	45	46	38	63	52	59	62	60
	국 제	1	0	0	0	0	2	0	1
	관리자	1	1	1	2	2	2	2	3
	전문가	188	182	207	203	233	247	296	328
	사무직	88	81	99	100	93	94	120	124
	서비스	184	187	183	212	216	269	289	322
	판매	130	110	130	140	132	179	202	207
	직업	농림수렵	5	11	8	8	2	3	5
기능원 등		76	61	76	58	59	64	61	52
기계조작 등		27	29	36	30	35	31	27	26
단순노무직		375	382	395	449	456	537	618	639
1~4인		493	496	526	574	546	614	687	739
5~9인		220	210	225	244	263	291	335	337
10~29인		190	183	207	201	234	284	322	349
30~99인		100	95	107	115	115	149	180	175
100~299인		34	28	36	38	35	49	42	46
300인 이상		36	34	33	30	35	39	54	56
종사상 지위	상용직	19	16	17	18	22	51	82	134
	임시직	453	432	533	582	578	750	943	986
	일용직	599	596	586	602	629	625	595	582
근속 연수	1년 미만	801	811	843	912	925	1,087	1,194	1,202
	1~2년 미만	137	107	134	138	148	156	193	211
	2~3년 미만	51	47	55	61	53	60	82	86
3년 이상	83	78	103	92	104	123	151	203	

<부표 15>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8월 기준)

(단위: 천 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임금근로자	1,324.7	1,466.4	1,542.3	1,593.3	1,655.8	1,745.5	1,846.2	1,852.0	1,948.9	2,032.2
정규직	1,455.9	1,678.0	1,771.4	1,845.7	1,908.2	2,008.5	2,127.3	2,200.9	2,294.4	2,388.3
비정규직	976.6	1,028.1	1,151.8	1,156.4	1,198.2	1,276.0	1,295.9	1,201.8	1,258.3	1,348.1
한시적 근로	1,038.8	1,092.4	1,231.7	1,240.3	1,313.0	1,440.3	1,457.8	1,301.0	1,400.1	1,502.0
기간제	1,055.8	1,082.3	1,187.4	1,258.2	1,292.6	1,418.8	1,489.4	1,311.4	1,360.0	1,463.1
반복갱신	1,163.9	1,478.3	1,704.3	1,692.3	1,774.1	1,949.0	1,853.6	1,930.7	2,263.3	2,201.7
기대불가	789.9	895.6	920.0	924.0	951.0	944.7	1,052.0	1,039.4	1,060.5	1,195.6
비전형 근로	974.8	976.4	1,067.5	1,080.6	1,045.8	1,111.9	1,197.0	1,190.9	1,249.0	1,321.1
파견	1,148.4	1,104.0	1,271.5	1,316.0	1,260.8	1,341.3	1,473.2	1,414.4	1,410.2	1,523.5
용역	862.3	870.7	922.4	948.1	932.9	1,023.5	1,083.3	1,110.9	1,174.9	1,224.4
특수형태	1,197.5	1,271.9	1,390.5	1,422.4	1,321.9	1,421.8	1,553.4	1,529.1	1,629.5	1,791.5
가정 내	529.8	412.0	563.7	566.8	596.4	568.4	486.5	600.4	435.3	519.9
일일근로	789.4	805.5	836.6	859.5	872.9	891.8	983.4	953.0	1,040.2	1,054.8
시간제	499.1	499.4	539.0	522.3	550.6	560.9	573.8	535.2	564.6	604.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11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 발행연월일 | 2011년 12월 26일 인쇄
2011년 12월 30일 발행
- 발행인 | 김 승 택 원장직무대행
-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 150-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 대표 (02) 3775-5514 Fax (02) 3775-0697
- 조판·인쇄 | 거목정보산업(주) (02) 2164-3232
- 등록일자 | 1988년 9월 13일
- 등록번호 | 제13-155호